

Select Header

신장: 165cm~325cm(낮에는 늘어나고 밤에는 줄어든다)

특기: 호수 증발시키기

체중: 49kg~355kg(낮에는 늘어나고 밤에는 줄어든다)

취미:에일 제조

종족:인간

일과:낮잠과 시 짓기

생일:7 월 1 일

좋아하는 음식: 낮에는 고기, 밤에는 채소

나이:40 세

차밍포인트:낮가림

혈액형:AB 형

콤플렉스:자기자신

쓰는 손:오른손

존경하는 인물:멜린, 펠리오다스

기사 랭크:금강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은 인물:멜린

마력:태양 선샤인

신기: 신부(神斧) 텃타

꿈: 멜린의 사랑

일곱 개의 대죄의 등장인물. 작중에 등장하는 동명의 기사단 '일곱개의 대죄'의 일원이다. 일곱개의 대죄 중 '오만의 죄 - 라이언 신(Lion Sin)'를 담당한다. 오만의 죄를 상징하는 사자의 낙인은 등에 새겨져 있다. 표지에서 모습이 살짝 나왔다가 본편에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며 등장한다.[그리고 OVA 오프닝과 마지막에서도 아주 잠깐 모습을 비춘다. 에스카노르가 가진 짐승의 낙인이 사자인 것은 본작에서 펠리오 일행이 일곱 개의 대죄의 일화를 가지고 소꿉놀이를 하는 도중 지나가듯이 언급된 것이 전부이며, 이후 애니메이션 PV에서 사자의 죄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거론 되었다. 일인칭은 보쿠-와타시-와레.

#### - 성격

낮이 아닌 평소 모습일 때는 오히려 매우 소심하고 (특히 멀린과 엮인 일에서라면) 다소 자기 비하적일 정도로 스스로를 낮추는 성격. 외관상으론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 언제나 공손한 말투를 사용하는 존댓말 캐릭터. 다만 낮이 되면 성격이 180도 반전되어 죄의 명 답게 오만해져서 반말 캐릭터가 된다. 그리고 무진장 강해진다.

낮의 모습은 한 없이 진지하고 오만하나 앞서 언급했듯이 외전에서 멀린의 해수(아쿠아 드레스) 수영복을 보고 코피를 뿜고, 자투리 코너에서는 아예 멀린이 만든 마법 도구를 호크만 반자 이에 질투를 해 멜리오다스가 만든 잔반을 빨리 먹기하는 대결을 한다.(...) 대결에서 승리하긴 하나 맛있는 잔반을 입에 가득 넣고 불이 뽕뽕해진 우스운 모습인데다 멀린에게 받은 마법 도구가 배변 캔디라 이틀간 화장실에서 사는 등 멀린과 엮이는 것 한정으로 상당히 망가지는 개그 캐릭터가 된다.

사랑하는 멀린을 위해서라면 실험 동물로 취급받더라도 상관없다고 말할 정도로 작중 최고의 순정남이자 메가데레. 킹과 비교해봐도 눈에 확 드러날 정도로 대놓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다니고 자나깨나 멀린 찬양에 여념이 없는 등, 같은 팀의 순정남 동료들이 그렇듯이 이쪽도 어지간한 멀린 바보다.

또 대죄 동료들을 굉장히 아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인의 언급이 중요한 장면마다 꼭 나온다. 젤드리스와 한 판 불을 때에도 마신족과 여신족 사이의 오랜 앙금에서 비롯된 전쟁에 인간이 낄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도 모든 것은 전부 벗을 위해. 라고 답하고 인두라전에서 죽기 직전까지 물림에도 대죄 동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어 자랑스러웠다고 독백하며, 마신왕과 전투에서도 시간을 끌며 은총을 무리하게 쓰면 죽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도 '일곱 개의 대죄 동료들과 함께할 수 있기에 마지막 싸움으로 어울린다.'라고 한다. 일곱 개의 대죄 안에서도 굉장한 동료애를 보이는 인물.

#### - 힘

그의 마력의 원천은 모든 생명의 근원인 선샤인.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정오에 가까워질수록 매우 강력해지지만,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질수록 힘이 약해진다. 능력의 원천은 원탁의 기사 중 가웨인과의 관련된 일화에서 나오는 에스카노르. 가웨인과 마찬가지로 태양이 뜨면 강해지고 지면 약해진다. 즉 쉽게 요약하면 슈퍼맨(크립톤인)처럼 필드 버프를 받는 캐릭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약육강식같은 먼치킨, 무쌍 타입이 아니라 약점이 명확하고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한 타입. 밤일 때는 극도로 약해져서 평균 인간 이하의 최약체로 전락한다. 호크보다 약한 수준이라 전력으로 칠 수 없다.

전투 스타일은 압도적인 파워로 적을 압살하는 것이다. 워낙 강력해서 체계적인 전투 기술은 익히지 않았는지 기술 대부분이 텔레폰 펀치처럼 동작이 크고 빈틈이 많다. 하지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피하지도 못하고 설령 막더라도 큰 대미지를 입을 정도이다. 태양의 마력답게 공격 대부분이 강렬한 열을 동반한다. 태양의 힘으로 호수 근처에서 공격을 하면 호수가 전부 증발하고, 아침에서 정오 사이의 시간대에서 태양의 힘을 발현하면 주위의 바위는 기본이고 성기사들이 입고 있는 갑옷의 철까지 녹인다.

최상위 마신족인 멜리오다스는 특유의 장난끼가 묻은 대사이긴 하지만 자기보다 강하다고 인정했다. 그의 강함은 십계와 사대천사 같은 상위권 강자들도 비정상적이라고 혀를 내두를 정도이며, 정오일 때는 어설트 모드의 멜리오다스를 압도했다. 만약 모든 생명력을 불태울 경우 마력을 사용하지 않은 순수한 육탄전 한정이라고는 하나 마신왕과의 일대일 싸움에서 우세를 점할 정도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한다.

낮 상태일 때는 거의 무적에 가깝지만 최약점은 있다. 정오에 가까울수록 힘에 취해 점점 오만해져서 멀린을 제외하면 동료들도 그를 말리기 힘들어한다. 또한 어지간한 공격은

피하지도 않아서 모락에 능하고 특수한 능력을 사용하는 적을 상대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하지만 상술했듯 너무 강해서 별 문제는 없다. 또한 너무 강력하다는 것도 문제인데, 아군이 뒤엎긴 난전에서는 아군이 휩쓸릴 가능성이 있어 힘을 사용하기 힘들다. 에스타롯사전에서 성기사들이 그가 평상시에 내뿜는 기운만으로 갑옷이 녹아내려서 버티기 힘들어하자 큰 호수가 있는 곳으로 유도해야 됐다. 즉 에스카노르가 전력을 내기 위해서는 일대일 싸움이나 그의 곁에 있을 정도로 강한 아군이 있어야 한다.

은총에 의지해서 시간대에 따라 투급 수치가 달라지지만, 에스카노르가 싸움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이 묘사된다. 가장 멜리오다스와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정오임에도 불구하고 마신화한 멜리오다스에게 한 방에 패배했지만, 시간이 이보다 오래 흐른 칠대죄 본편 중반부에서는 치열한 접전 끝에서 간신히 승리했다. 마신왕과의 최종결전 시점에서는 회광반조로 더 원 얼티밋을 발동하여 전성기의 마신왕과 대등한 싸움을 벌였고, 우세를 점하다 나중가서는 밀렸다.

#### - 선 샤인 태양

태양의 힘을 다룰 수 있으며 낮 한정으로 모든 능력치가 대폭 상승한다.

#### - 신부(神斧) 릿타

태양에게 사랑받은 처녀의 이름을 딴, 여신의 형상이 장식되어 있는 금빛 한손 도끼이다. 매우 무겁다고 하는데 그 쉽게 갈란조차도 설게 미스라고 할 정도로 엄청 무겁다. 또한 소유자의 부름에 응답해서 자동으로 소유자에게 날라가는 기믹도 존재한다. 신기에 축적돼있던 태양의 힘으로 밤에도 낮의 형태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

특히 밤에도 낮의 힘을 얻게 해주는 2번 효과가 에스카노르의 고질적인 단점을 없애준다. 의도적으로 밤을 불러대는 능력을 가진 적에게도 어느 정도 대항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원초의 마신과의 전투에서 박살났기에 이후로는 위의 능력에 기댈 수 없는 상태.

여담으로, 팬들 사이에선 릿타를 버리고 맨손으로 싸우는 게 훨씬 강하지 않냐는 우스갯소리가 돌고 있다. 멜리오다스와 싸울때 성검 에스카노르는 아예 상반신을 세로로 찢어버렸고, 고치 공방전의 젤드리스는 성장 에스카노르에 꿰뚫려 즉사할 뻔 했고, 그저 더 원 뿐만 아니라 젤드리스의 육체를 장악한 마신왕과의 전투에서도 릿타가 아닌 맨손을 사용한 공격이 더 상대에게 많은 대미지를 입혔고 더 원 얼티밋으론 몰아붙혔다.

즉, 정말로 릿타 드는 것보다 맨손으로 공격할 때의 위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다른 단원들과는 다르게 그에게 있어서 신기는 밤을 제외하면 그렇게 전투력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릿타의 기능은 전투 지속시간을 늘려주는 것 외에도 차지한 태양의 마력을 방출해 화력을 올려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아예 전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에스카노르와 전성기 시절 멜리오다스와의 우열은 팬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떡밥 중 하나였고, 과거에 멜리오다스가 본인 입으로 에스카노르는 나보다 강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멜리오다스 특유의 능글거리는 성격 때문에 진담인지 농담인지 알긴 힘들지만 설령 농담이라 하더라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에스카노르의 막강한 전투력을 입증해주는 확실한 증거이며, 반면 멀린은 기억과 형태가 쉽게 시절의 과거로 회귀한 멜리오다스를 보고 에스카노르에게 지금의 단장 공은 너에게도 벅찬 존재다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멜리오다스든 에스카노르든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간단히 압도할 만큼 쉽게 우열을 가릴 만한 수준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선샤인의 숙련도가 미숙했던 외전에서는 멜리오다스에게 단 한 방에 패배했지만, 일곱 개의 대죄로서 실력이 숙련된 시점에서 벌인 결투의 결과는 에스카노르의 승리였다.

전투력으로만 따졌을 때, 정오의 1 분이 끼여있는 에스카노르가 1~2 시간정도 교전하면 당시의 어설트 모드의 멜리오다스와 대등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문제는 아래에 서술된 격전 직후의 상태변화이다.

에스카노르

에스카노르도 격전 직후 멜리오다스처럼 맥없이 쓰러졌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멜리오다스한테 너무 맞아버려서 이미 정오 이전에 맞을대로 맞은터라 에스카노르도 체력적으로 한계가 왔었다. 고서의 측정으로 에스카노르가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인증했다. 자세한건 아래에 서술.

본인 힘의 반동 또한 문제가 되었던게 힘의 원주인 마엘은 은총을 받기 전에도 여신족 최상위권의 강자인데다가 십계와 사대천사의 강함 비율은 엄연히 1 : 2 이상이다. 그런 마엘이기에 폭발적인 태양의 힘 정도야 무리 없이 활용할 수 있었겠지만 에스카노르는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약골 수준의 말라깽이이다. 평범 미만의 인간이 이런 강대한 힘을 남용해버렸기에 몸의 부담이 커져버린 것.

멜리오다스

격전 당시에는 에스카노르의 더 원으로 인해 리타이어당한 멜리오다스가 저평가 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평가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싸움 이후의 마신족의 압도적인 회복력이 평가를 바꾸는데 일조했다. 멜리오다스는 마신왕 제외, 명실상부 마신족의 최강자로, 적어도 마신족 내에서 십계 시절의 멜리오다스에게 속된말로 개길 수 있는 인물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신족이 어떤 종족인가? 세계관 내에서 그 어떤 종족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막강한 자가회복력을 자랑한다. 이 회복력은 확실히 상위 마신일수록 더욱 강해지며 그렇다는 것은 멜리오다스의 회복력 역시 마신족 탑클래스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멜리오다스가 정신을 차린건 둘이 격전을 벌이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에스카노르는 반나절이 지나도록 일어나지 못했다. 에스카노르가 피해를 더 받긴 했어도 둘의 피해는 이미 반절을 한참 넘겼기 때문에 둘 다 위험 상태였고, 애초에 이 정도의 시간차면 누가 피해를 더 받고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외로 힘의 효율성이다. 에스카노르는 확실히 멜리오다스를 쓰러뜨렸다. 더 원이 발동된 단 1 분 동안에만. 고치 공방전의 상황을 보면 젤드리스 하나 잡겠다고 그 강력한 더 원의 지속시간을 상당히 허비해버렸을 뿐더러, 이렇게 된다면 전략을 짤 여지가 충분했던 나머지 찬드라와 큐자크를 어떻게 대처하냐는 것이다. 이러면 아무리 1 분 동안의 절정의 상태가 되어도 의미가 없다. 반면 멜리오다스는 섬멸 모드의 특성상 24 시간 내내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마신족의 특성상 밤에는 어둠의 힘이 증폭되어 더 강해지기까지할 뿐더러 격전 직후 멀린의 언급으로 멜리오다스가 내뿜는 장기가 더욱 강해진다고 하는데 이 역시도 멜리오다스가 점점 전성기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평가가 갈리는데 에스카노르의 목적이 살상이 아니라 제압이기에 멀린의 말이 나온 것이니 멜리오다스 이상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파랑 멜리오다스 상대로 한계까지 싸워서 추가타를 못 뒀다등 여러 기타 이유가 있기에 멜리오다스가 더 강하다는 파로 나뉜다

마신왕은 직접 더 원을 보곤 자신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이라고 말했다. 이전을 능가하는 더 원 얼티밋이 발동되어 전성기 마신왕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모습은 진짜 생명력을 불태워 사용하는 기술로 조건 한정 스펙의 차이로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멜리오다스와 에스카노르의 전투력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으며, 종합적인 전투력은 대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막강한 힘을 단순한 인간이 가지고 있고, 자신마저 악화시킬 정도로 무식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여러 인물이 의문을 가졌고 결국 사대천사 류드시엘에 의해 3천년 전 십계에게 살해된 본인의 동생이자 최강의 사대천사인 마엘의 은총이 깃든 것이라고 한다. 어째서 그 은총이 현재 에스카노르에 깃들었는지는 불명. 이 점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여지껏 에스카노르와 싸우거나 싸움을 관찰한 인물 중 에스카노르의 힘이 은총인걸 눈치챈 건 2 차 성전 당시 젤드리스와 대치하던 상황에서의 찬드라 뿐이었다.

도끼에 썰리고 끝난 갈란이야 모를 수 있다고 쳐도 혼까지 삼키고 불탄 메라스쿨라, 크루엘션을 맞고 불탄 에스타롯사, 특히 특별편에서 직접 마엘과 대치했던 멜리오다스, 젤드리스와 류드시엘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악명이 자자한 멀린이나 같은 여신족인 엘리자베스가 있었는데도 3000 년 전 성전시대의 인물들은 눈치채긴커녕 말도 없었다.

이는 본편과 극장판 부록에 나온 마엘의 전투 스타일로 대강 유추할 수 있는데 본편에서 고서(십계)에 의해 과거 포로가 된 마신족을 학살할 당시에는 검으로 처리했으며 십계 하위권 수준으로 추정되는 전투력을 가진 흑의 6 기사 대장인 벨리온을 상대로는 그냥 열만 발산했는데도 벨리온이 타죽기 직전까지 갔다. 즉, 너무 강해서 본인이 힘만 살짝 방출해도 전투력이 낮은 십계정도는 손도 안쓰고 태워죽일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마신족의 경우 대부분이 모를 수가 있다.

여담으로, 은총은 본래 최고신에게서 마엘이 받은 힘이다. 후천적으로 얻은 마력이라는 것. 멜리오다스의 풀 카운터가 기술로 밝혀짐에 따라 본래의 마력이라는 떡밥이 나왔듯이 에스카노르도 자신만의 마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에스카노르가 은총을 발동하는 도중에는 그 시간에 맞춰서 점점 덩치도 커짐은 물론, 성격적으로도 계속해서 오만해진다. 하지만 추후 은총이 다시 마엘에게 되돌아 갔을 때 마엘은 덩치가 커지지도 않고 성격이 오만해지지도 않았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불명. 추후 밝혀진 바로는 낮의 에스카노르와 밤의 에스카노르는 사실상 다른 인격으로, 밤의 에스카노르는 낮의 에스카노르를 괴물 취급하고 낮의 에스카노르는 밤의 에스카노르를 약골 취급한다. 막 각성했던 어린 시절에는 힘조절을 못해 남을 다치게 했을 뿐 성격은 그대로였으니 덩치는 어찌됐든 성격의 변화는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로 인해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기제인 듯하다.

또한 어떻게 마신왕에게 몰아붙일 정도의 힘을 얻었는지도 의문이다. 그 전엔 더 원이 아니라면 마신왕은커녕 어설트 모드 멜리오다스에게 상대도 되지 않았는데, 정오와 엄청 가까운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마신왕에게 대미지를 준 건 매우 이상하다.

젤드리스의 육체를 장악한 마신왕전에서 에스카노르의 비상식적인 파워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으나 작중 에스카노르 본인의 언급과 태양의 원주인 마엘의 말에 따르면 마엘에게서 태양의 은총이 떨어져나가고 3000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기다려 마침내 에스카노르를 선택했다는 말을 보아 에스카노르 본인이 은총 스스로가 선택할 정도로 다른 인물에 비해 은총에 대한 적합도가 높거나 그에 준하는 특별한 존재였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그 마신왕조차 더 원의 힘에 감탄했으니 에스카노르의 더 원은 평균적인 선샤인의 힘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부모 & 형제: 카스텔리오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던 에스카노르는 부모에게 사랑 받았다. 이를 질투한 형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때 은총의 힘이 폭주해서 형의 팔을 부러뜨린다. 부모도 폭주하는 에스카노르를 받아들이지 못해 괴물 취급하며 왕국에서 내쫓았다. 현재 카스텔리오 왕국은 멸망했다고.

로자: 부모에게조차 버림받았던 에스카노르에게 변함없는 태도를 보여준 여인. 왕국에서 토벌명을 받은 에스카노르를 밤중에 몰래 배에 실어 도망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 후 왕국이 멸망했을 때 로자도 죽은 모양. 에스카노르는 멀린의 도움으로 사자의 도시에서 재회해서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말할 수 있었고 삶의 각오를 다지며 비관적이었던 인생에 대한 태도를 바꿀 것을 선언했다.

일곱 개의 대죄 기사단:

멜리오다스: 은총의 폭주로 고립됐었던 에스카노르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은인. 에스카노르는 멜리오다스의 도움으로 일곱 개의 대죄로 들어가서 동료들을 얻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었다.

멀린: 영원한 태양이자 첫사랑. 처음에는 외모가 로자와 닮은 멀린에게 끌렸지만, 그 이후 그와는 별개로 자신에게 변함없는 태도로 대하는 멀린에게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다. 밤이든 낮이든 멀린에게 열렬히 구애하지만, 그때 당시 멀린은 에스카노르에게 이성으로서의 별 관심이 없었다. 십수년이 흘러 멀린은 아서 펜드래곤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여전히 에스카노르의 마음을 받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에게 구애하는 에스카노르에게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고 만약 3천년 전이었다면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비록 에스카노르의 고백은 받아주지 못했지만 죽기 직전 키스를 해 그에 대한 흔적을 남기며 영원히 그를 기억하겠다고 선언하며 마지막을 지켜준다. 에스카노르는 유언으로 언젠가 반드시 멀린의 고독한 마음을 채워줄 이가 나타나길 바라는 시를 읊으며 승천했다.

반: 사이 좋은 동료. 평상시에는 반에게 찢찢매지만 낮 상태에서는 역으로 반을 혼쭐낸다.

킹 & 다이앤: 사이 좋은 동료. 킹과 다이앤의 사랑을 응원했으며 결혼식에는 참가하지 못하지만 둘의 행복을 기원했다.

고서: 마음이 없는 고서는 에스카노르의 역린을 건드려서 그의 분노를 샀다. 하지만 에스카노르는 그 이상으로 고서를 소중한 동료로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싸움을 붙인 글록시니아와 드롤에게 분노의 일격을 날렸다. 워낙 성격 차이가 커서 낮 상태의 에스카노르에게 허물없이 대하는 사람 중 한명이다.

엘리자베스 리오네스: 리오네스 왕국의 삼녀인 엘리자베스와는 친한 동료 사이이다. 멜리오다스의 연인인 그녀를 구함으로서 친구 멜리오다스를 도우려고 했다.

호크: 낮 상태에서도 호크가 스스럼 없이 다가와서 제법 친분이 있다. 하지만 호크가 멀린의 실험체로서 특별 취급 받는 것에 질투해서 멜리오다스의 잔반 빨리 먹기 대결을 벌였다. 장렬한 승부 끝에 멀린에 대한 사랑으로 에스카노르가 승리하지만 보상으로 얻은 멀린의 절대강제 배변사탕으로 이틀내내 화장실 신세를 진다.

마엘: 은총 선샤인의 본래 주인. 마엘과는 은총으로 이어졌으며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사이이다. 마엘과 직접 만났을 때 마신왕전에서 전력이 되지 못한 자신을 대신해서

마엘에게 은총을 다시 가져가 싸워줄 것을 부탁했다. 그동안 과오로 에스카노르에게 힘을 빼앗는 걸 죄책감을 느낀 마엘이 망설이자 오만하게 힘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돌려준다. 마지막 결전에서 힘없는 상태로 인듀라의 유생과 싸우다가 죽을 뻔한 에스카노르의 마음을 듣고 마엘은 다시 한번 지상으로 강림하는데, 이미 수명이 거의 없는 걸 직감해서 마지막으로 동료들과 함께 싸우고 싶었던 에스카노르는 부탁을 하여 돌려준 은총을 빌려받아서 마신왕과 싸운다. 마엘은 이때 에스카노르의 결말을 예측해서 그를 애도했고 대죄 멤버들과 함께 그의 마지막을 지켜봤다.

아서 펜드래곤: 서로 접점은 없지만 멀린을 짝사랑하는 에스카노르는 그녀의 가장 소중한 대상인 아서를 질투했다. 사실 아서와 멀린은 연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사제로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는데, 멀린의 관심 자체를 특별하게 여길 정도인 에스카노르에게는 별 다를 바는 없다. 하지만 자신이 아무리 용을 써도 그를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에 낙담한다.

#### - 작중 행적

과거 회상편과는 다르게 안경을 쓰고 콧수염을 기른 상태로 동굴 깊숙한 곳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술집 이름이 아름다운 폭식(...)인데다 벽면에 한 손 도끼가 걸려 있고 들고 있는 술병에는 'Seven Deadly Sins'라고 쓰여있다. 반과 아는 사이임을 확인 시켜주며 제일 먼저 멀린의 안부를 물었다. 일곱 개의 대죄에 대한 오해도 풀렸다는 것 또한 확인, 반 일행을 창고에 숨겨준다. 곤장 갈란과 메라스큐라가 쫓아오지만 둘은 3000 년 만에 맛 보는 술에 정신이 팔려서 잔뜩 취한다.

창고에 반 일행이 숨어 있다는 건 진작에 간파당하고 있었지만 술 기운 탓에 방심한 탓인지 갈란이 에스카노르에게 게임을 하자고 제시한다. 일명 갈란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의 내용은 극히 단순한데 1:1 데스 매치로 무기와 선공을 정한 뒤 번갈아가며 어느 한 쪽이 죽을 때까지 공격하는 것.원펀치 갈란이 협박하자 울며 겨자먹기로 한다고 동의했지만 이에 신나서 갈란이 때린 등짝 한 방에 날라가 게임도 못 해보고 기절 해 버린다

시간이 지나 아침이 되고 갈란이 벽에 걸린 도끼를 집어 들고 너무 무겁다, 손잡이 디자인이 잘 못 되어있다는 등 불평하는 사이 근육질인 낮의 모습으로 변해 도끼를 빼앗아 쥐고 사람이 맞느냐고 묻는 갈란에게 자신은 인간이지만 모든 종족 중에 정점이라며 오만의 죄 에스카노르라고 이름을 밝힌다.

갈란이 오만하다며 웃자 그에 응해 주듯이 호쾌하게 웃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갈란을 두 동강 냈다. 이 모습에 메라스큐라는 소름을 느끼며 3000 년 전에 이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기겁하지만 갈란은 곧 바로 부활, 십계를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을거라 생각지 말라고 외치는 갈란에게 물론이죠. 너무 빨리 죽으면 게임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라고 화답. 메라스큐라는 갈란이 한 방에 죽지 않도록 봐줬다는 듯한 말투라며 오만함을 꼬집고, 갈란은 조금전 일격에 자극을 받았는지 보통 녀석이 아니라 전력을 다해 싸워야 한다고 본능적으로 느꼈다며 숨겨두었던 힘인 임계 돌파(크리티컬 오버)를 사용하여 전투력을 4 만까지 올리고 진심의 일격으로 에스카노르를 공격하는데 그 여파로 주변이 초토화되는 연출에 비해 에스카노르에게는 고작 팔에 무기가 살짝 박힌 정도였을 뿐이었다. 덩으로 이 당시 에스카노르의 전투력은 5 만을 넘고 있었다. 전혀 상대가 안 됨을 깨닫고 메라스큐라는 자리를 뜨자고 권하나 갈란은 두 말은 필요없다며 피 튀기게 싸울 것을 권유, 이에 답하듯 그럼 제 차례군요...라며 릿타를 하늘로 들어 올린 순간 공포를 느껴버린 갈란은 등을 보이고 말았고, 스스로 걸어둔 금계의 제약인 도망 불가의 맹세를 어긴 탓에

돌이 되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리타이어 하게 된다. 이후 계급의 제약은 당사자가 어겨도 돌이 뭍을 아이러니하게 여기는 한 편 상대가 자신인 이상 그럴만도 하다며 메라스큐라에게 도망인지 죽음인지 선택할 기회를 줄테니 자신이 페미니스트인 사이에 선택을 중용하나 이내 암담의 고치에 걸려 영혼을 빼앗기고 메라스큐라에게 영혼을 먹혀 버리지만 에스카노르의 마력이자 힘의 원천이 태양이었던 탓에 곧 바로 뜨겁다고 몸부림치다 몸이 발화하며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고 영혼은 다시 에스카노르에게 돌아온다.

그 뒤 반에게 여러가지로 용건이 있지만 정오에 가까워 졌으니 밤에 이야기 하자며 그 때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을 내리곤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 이 후 한밤중이 되어 소심한 말라깽이 상태가 돼서야 돌아와 반에게 제리코, 엘레인을 소개 받은 뒤 일곱개의 대죄 일행에 다시 합류하기 전에 술을 어느 장소까지 전달해야 한다며 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냥 안하면 되지 않냐는 반에게 이건 술집의 마스터로써의 마지막 임무이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굽히지 않는다.

고서 밑에 깔린 채 등장하는데 깔리면서 멀린이 준 안경이 부서져서 좌절하고 있던 차에 글록시니아가 시끄럽다면서 배를 찢어버린다. 아직 멀린에게 고백도 못 했다면 아쉬움만 남기고 죽어가는가 싶더니 글록시니아가 대회 우승자에겐 무엇이든 들어준다는 걸 입증하는 예시 삼아 다시 살려낸다

심계가 준비한 토너먼트에서 고서&제리코와 맞붙는다. 거기에 에스카노르와 한 팀인 자는 다름아닌 호크(...) 에스카노르는 동료끼리 싸우기는 싫다고 본인과 호크를 부전패 시키거나 룰을 변경 해달라고 심계에게 요청하나 당연히 기각. 호크와 고서를 말리려던 제리코 둘 다 고서에게 털리고 고서는 비록 밤인 상태에서 에스카노르의 전투력은 터무니없이 약하지만 마력 5 무력 5 기력 5 총 전투력 15 <오만의 죄>로서의 에스카노르에게 경의를 표하는 뜻에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나이트메어 테라라는 기술을 쓴다. 이 때 에스카노르의 과거가 나오는데...

과거 한 나라의 둘째 왕자로 태어났으나 어린 시절 자신에게 질투심을 느낀 형에게 구타 당하다가 마력이 발동 돼 형의 팔을 부러뜨리게 되고, 이 후 다른 사람들은 물론 자기 부모마저 그의 한 낮의 변모한 모습을 보고 괴물이라느니 저주라니하며 살려두면 나라에 재앙이 닥칠거라며 에스카노르를 죽이려 하였으나 어려서부터 에스카노르가 잘 따랐던 로자라는 여성이 에스카노르를 피신 시켜주어 목숨을 부지하게 된다. 이 후 정처없는 방랑 생활을 하다 로자와 매우 닮은 멀린과 멜리오다스와 만나 멀린의 권유로 일곱 개의 대죄의 일원이 되고 방랑 생활중에도 낮의 모습 덕에 괴물 소리를 들으며 두려움의 대상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자신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흥미로워 하는 멀린에게 사랑의 감정을 품게 된다.

그러나 이 과거 회상 직후 고서가 만들어낸 멀린의 환영이 나타나 에스카노르에게 내일이 없는 자와 함께 걸을 순 없어라는 말과 함께 너의 저주는 풀 수 없다, 너는 그냥 내 실험 재료일 뿐이다, 평생 누구에게도 사랑받는 일 없이 고독하게 죽어라 등의 저주와도 같은 매도와 폭언을 들으며 에스카노르의 의식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듯 하였으나 에스카노르는 이미 멀린에게 실험 대상 취급 받아도 좋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에스카노르는 어둠 뿐이었던 자신의 인생을 비춰준 태양같은 존재가 멀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을 무슨 말로 매도하건 설령 실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고 해도 멀린만을 바라볼 것을 이미 결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멀린이 주는 추상적인 태양의 이미지 덕분에 한밤중인데도 낮 처럼 외향과 전투력이 증가해 버린 것은 덤. 이후 고서의 안경을 빼앗아 호크에게 넘기고, 진심이 된 고서와 대치. 고서의 개틀링 썬을 점프로 가뿐히 피한



뒤 신부 릿타를 소환해 신기를 해방하며 마음을 가지고 논 대죄를 그 몸으로 속죄하라며 공격하려 하자 반이 제리코와 호크가 공격에 말려들 것을 우려해 에스카노르를 막으려는데 멜리오다스가 에스카노르를 믿으라며 반을 말린다. 고서도 쌍궁 해리트를 십자 모양으로 만들어 자동 추적모드를 작동한 상태에서 에스카노르에게 블랙 아웃을 사용, 이에 에스카노르의 공격은 고서를 비켜가 불발이 되고 다시 밤의 말라깽이 모습이 되어 쓰러져 고서의 승리가 되나 했으나 애초에 에스카노르가 노린 것은 고서가 아니라 십계인 드롤과 글록시니아였다. 이 공격으로 드롤과 글록시니아는 그로기 상태가 된 채 피투성이가 되었다.

이 후 공간 이동으로 성으로 돌아와 고서에게 얹힌 채로 단장과 십계들과의 전투를 지켜보다 멜리오다스가 십계에 패하는 모습에 눈물을 흘린다. 그 뒤 한동안 출연이 없다가 일행들을 추적해온 에스타롯사의 증오를 품는 자는 힘을 쓸 수 없는 금주로 인해 움작달작 못 하는 동료들 사이를 홀로 금주를 개무시하며 당당한 걸음으로 에스카롯사의 앞에 나서며 재등장. "왜 금주가 통하지 않지?"라는 그에게 태연한 어조로 "당연하죠, 자신보다 약한 자에게 증오를 느낄리가 없지 않습니까." "약자에게 느낄 수 있는 건 연민 뿐..."이라며 에스타롯사와 전투에 돌입. 진성 먼치킨 갈란 때를 떠올렸는지 자신에게 증오를 품어서 스스로의 금주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친절한 조언은 덤(...)

일단 서로 가볍게 한 방씩 주고 받는데 힘싸움에선 한 수 위인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음 공격에서 에스타롯사의 모든 물리 데미지를 반사시키는 마력 폴카운터에 의해 자신의 공격에 데미지를 입고 만다. 허나 "왜 아픈가 했더니 내 공격이라서였군요. 역시 이 몸이야."라는 셀프 칭찬 오만한 대사와 함께 여전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그뒤 서로 이름을 교환하더니 에스타롯사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자신도 진심을 낸다고 하면서 "우선 정상적으로는 못 죽습니다?"라고 말한다.

동료들이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에스타롯사를 날려보내 결투 장소를 변경. 에스타롯사를 호수 밑으로 날려버린 뒤 작은 태양과도 같은 크루얼 썬를 날려 에스타롯사와 함께 호수를 통째로 증발시켜버린다. 허나 에스타롯사는 어둠을 펼쳐 가까스로 가드에 성공한 뒤 어둠을 두른 상태로 전력을 다하게 되고, 에스카노르의 마력인 태양은 어둠으로 감싸 무력화하고 물리 공격은 풀 카운터로 무력화하는 등 우위를 잡은듯한 모습으로 십계인 젤드리스가 '승부는 났군'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전개가 이어졌으나... 아직 정오가 아니었다.

심지어 정오(풀 파워)까지는 무려 1 시간 이상이 남아있었으니, 다시 말 해 십계의 가짜 수장을 밀어붙이던 그 모습조차 힘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던 것. 바로 일어서면서 반격을 시작하는데 다시 한 번 말투가 바뀐다. 더욱 오만하게.

이에 위기감을 느낀 젤드리스가 재빨리 난입하나 에스카노르가 마력을 내리 쏘는 순간 에스타롯사가 증발하는 듯한 묘사와 함께 날려져버리고 난입한 젤드리스도 말려들었는지 함께 날려져버리고 만다. 전투가 끝나 왕도로 돌아가야 하지만 본인이 풀파워에 가까운 상태라 방출하는 엄청난 열기를 신부 릿타로도 다 흡수할 수 없는 상태라 한동안 그 장소에 머물기로 한다.

일몰이라 근육질은 아니지만 말라깽이도 아닌 평범한 모습으로 나온다. 한밤 중은 아닌지라 자기 자신에게 비판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목욕하는 멀린을 안마 해주며 등장. 부럽다 이 때 아침임에도 말라깽이 모습을 하고 있는데 멀린이 무슨 수를 써서 에스카노르의 마력을 봉인해 놓은 모양. 전투 후 침울한 멜리오다스의 기운을 분돈아주기 위해 시를 읊어주나 혹평만 받는다

원혼이 씌워 동료들을 공격하는 다이앤을 멈추려 레이디니까 얼굴은 피해드리죠. 라며 가볍게 배빵 한 방 먹여주나 반격 당한다. 물론 대미지는 없었고 이 후 할 수 없으니 계속 주먹으로 대화를 나눠보라며 히이익 몸을 추스리나 멀린의 중재로 멈추고, 이 후 229 화에서 난입한 과거의 기억을 되찾은 엘리자베스가 멀린에게 많이 컸다며 "이젠 언니야 라고는 불러주지 않는 거야?"라고 하자 대홍분하며 "엘리자베스 왕녀,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라며 하악하악 거린다(...) 이 후 메라스큐라의 암담의 고치를 자력으로 탈출한 멜리오다스의 사악하고 강력한 마력에 이끌린 듯 신부 릿타를 들고 멜리오다스의 앞에 서게 되고, 멀린은 지금의 단장은 너의 힘으로도 벽차다며 말리지만 이래봐도 아이 돌보기는 자신 있다며 이건 정말 달랠 보람이 있어 보이는군요...라는 대사를 끝으로 최강자들의 결투인 멜리오다스(最凶) vs 에스카노르(最強)의 대전이 예고 되었다.

드디어 멜리오다스와 격돌. 여유작약한 분위기로 릿타를 몇 차례 휘둘러 공격하지만 모두가 당하고 멜리오다스의 일방적인 공세가 이어지다 배를 꿰뚫리며 쓰러지는 등 다소 불리한 분위기가 이어지지만 곧 정오다.라는 멀린의 말과 함께 다시 일어서며 한층 더 근육질이 된 모습과 더불어 말투가 반말로 바뀐다. 더불어 전투력도 11 만 4000 까지 상승. 상황이 역전될 듯한 분위기로 이어지는 승부에서 슈퍼 슬래쉬를 날리나 가볍게 회피한 멜리오다스가 날린 펀치 한 방을 가슴에 맞고 또 다시 무릎 꿇게 된다. 머리를 짓밟히며 바뀐건 말투 뿐이냐?는 비웃음을 받은 건 덤.

에스카노르 조차 상대가 안 되는 모습에 동료들은 좌절하고 멀린은 저것이 순수한 마신족 영웅으로서 십계를 통솔하던 시절의 멜리오다스의 모습이라고 설명. 에스카노르는 전투를 이어가지만 단장은 모든 공격을 받아내고 크루얼 썬도 폴 카운터로 튕겨버리는 등 계속 우위를 선점하던 중, 칼이 날려져 버리고 에스카노르는 회심의 펀치를 날리는데 성공하지만 카운터로 얼굴에 맞은 주먹 한 방에 에스카노르는 퍼펙트 큐브 안을 수 차례 튕겨지다 또 다시 쓰러져 버린다. 동료들이 거듭 좌절하는 가운데 멀린은 남은 유예는 1 분...이라고 중얼거리고, 정오가 가까울수록 강해지는 에스카노르의 특성을 다시금 설명하며 정오를 기준으로 약 1 분 동안 에스카노르는 무적의 화신인 더 원(The One)이 된다는 말과 동시에 에스카노르는 더욱 부풀어 오른 근육과 전신이 불타오르는 듯한 더 원의 모습이 되어 다시 일어난다.

그와 동시에 멜리오다스의 신 죽이기(神千斬ぎり) 라는 기술에 베여버리지만

"가렵군"이라며 멀쩡한 모습과 더불어 등에 사자의 낙인이 선명하게 드러난 모습을 보이고 뒤이어 손을 수직으로 세워 허공을 가볍게 베는 동작과 함께 "성검·에스카노르"라 읊조리자 멜리오다스의 몸이 사선으로 썰린다!" 더 원 상태로 일격만으로 십계 시절에 멜리오다스를 치명상을 입혀 쓰러트린 후 "마신인가 하는 놈, 인간에게 멸시받는 기분은 어떤가?"라는 대사와 함께 에피소드는 종료한다.

멜리오다스를 쓰러트린 뒤 멜리오다스가 다시 회복해서 날뛰면 어쩌냐고 걱정하는 일행들에게 에스카노르는 자신이 다시 한번 더 달래주겠다고 웃으며 얘기한다. 하지만 멀린이 허세를 그만 부리라면 가슴을 주먹을 톡 쳤더니 에스카노르 역시 그대로 쓰러져서 기절한다. 멀린이 보기를 멜리오다스와 에스카노르 둘다 치명상을 입었지만, 에스카노르는 멜리오다스가 입힌 대미지에 자신의 마력의 특성상 힘을 많이써서 자신도 대미지를

입어버린 것. 둘의 상태를 보는 도중 멜리오다스가 어둠의 힘으로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지만, 멀린에 의해 저지 그리고 퍼펙트 큐브로 따로 격리할 것을 요구해 멜리오다스와 엘리자베스는 퍼펙트 큐브로 따로 격리 된다. 그리고 둘의 회복에 전념한다. 고서의 평으로는 멜리오다스는 신체의 78%의 대미지를 받았고 에스카노르는 98%의 대미지를 받아 일시적으로 둘의 전력을 잃어버렸다. 남은 다섯은 카멜롯에 도착할 때까지 십계가 공격해올 가능성이 있으니 자신들이 힘내서 막자고 다짐을 한다.

하지만 찬드라의 등장으로 에스카노르와 고서는 힘을 못쓰게 되고 호크가 낙인을 지우고 고서와 킹과 디안나가 협동해서 겨우겨우 무찌른다. 하지만 낙인은 지워지지않아서 고서는 쓰러지고 찬드라는 모습을 바꿔백발의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흑발의 젊어 보이는 모습으로 되돌아가 일행을 추적하고 드롤과 글록시니아의 희생으로 어찌저찌 따돌린다.

그후 멀린과 켈드리스가 협상을 해 카멜롯을 해방시키고 류드시엘의 공격을 틈타 빠져나온다. 밤이 된후 스티그마의 결성을 지켜본다.

낮이 되자 안경이 부서졌는지 안경을 하지않고 호크와 장을 보다 에스카노르의 마력을 느낀 류드시엘과 신경전을 벌인다. 사실 에스카노르의 마력은 최고신이 내려주는 것이라며 사대천사중 한명이고 류드시엘 남동생이었던 마엘이 가지고 있었던 마력이었던 것. 류드시엘은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은 신의 힘이며 네 몸을 점점 갇아 먹을 것이라며 그힘을 좋은 말로할 때 버리라고 하지만 에스카노르는 그런이야기엔 흥미없다며 이 힘은 내가 태어날때부터 있었던것이고 당신이 말한 은총이란 것이라면 그 은총이 가장 강하고 위대한 나를 선택한 것 아니겠냐며 류드시엘의 검을 녹여버린다. 이에 류드시엘은 마음에 든다며 호탕하게 웃고 도움이 되어보라 말하고 에스카노르도 웃으며 그쪽이야 말로 발목 잡지말라 응수한다.

아서를 구하러 먼저 혼자 카멜롯에 가겠다는 멀린의 작전에 반대하며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애송이를 구하러 갈 가치는 없다 말하지만 멀린이 췌려보자 바로 눈을 돌린다. 이때 아직 자신의 마력도 모르는 사람을 어째서 그렇게 구하러 하는 것이냐는 호크의 말에 에스카노르도 동조하고 멀린에게 대답을 듣는다.

큐자크의 공명때문에 자결을 한 아서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슬퍼하는 멀린의 모습을 보고 문밖에서 그녀를 격려하려는 말을 연습한다. 그러나 멀린에게 아서의 존재가 엘리자베스에게 멜리오다스의 존재와 같다는 엘리자베스의 말에 크게 낙심하여 땀뻗 문을 두드리지도 못하고 돌아간다. 이후 에스카노르는 성전을 위한 마지막 작전회의에 참여하러 가는 길에서 고개를 숙인 채 기운 없는 모습을 보인다. 또 회의장에서 타르미엘과 사리엘이 에스카노르를 보고 마엘의 은총이라며 놀라자 난 지금 기분이 몹시 별로라고 짜증을 낸다. 하지만 곧 바로 멀린이 작전회의 중이니 정숙하라고 하자 쭈굴... 이후 에스카노르는 카멜롯에 직접 침투하는 강습부대로 선정된다.

다이앤과 킹의 연애질에, 성전을 앞두고 정신이 빠졌다며 질투 휘방을 놓는다. 이 때 기분 나쁜 일이 있냐며 묻는 멀린의 목소리가 들리자 곧바로 뒤를 돌아 보는데 실은 고서의 목숨을 건 장난. 그걸 보고 빠친 모습을 보이지만 이후 몰래 피를 토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망플래그를 쫓는다. 류드시엘의 언급에 의하면 애초에 평범한 여신족이 다루는 힘도 아니고 최고신의 선택을 받은 사대천사의 은총이다보니 일반적인 인간의 몸으로 감당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긴 하지만.

에스타롯사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에스카노르의 마력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의혹이 조금씩 생겨났다.

오랜만에 재등장. 강습부대의 다른 일행들과 함께 카멜롯으로 침투, 찬드라와 대치한다.

찬드라를 공격하면서 멜리오다스의 고치를 공격하지만 통하지 않는 걸 보고 감탄한다. 그후 젤드리스가 자신의마력 '홍성운'을 발동하자 빨려들어가는 것을 힘으로 버티고. 멀린은 무사한지 알아보고 안도한다. 류드시엘은 그렇게 빨아들이고 싶으면 빨려가주겠다며 빨려들어가면서 젤드리스를 공격하지만 오히려 알수없는 힘에 역공당해 상처를 입고 무기가 부서져버리고 에스카노르의 등에 잠시 기댄다. 에스카노르는 친한척이나며 싫어하지만 류드시엘은 그런게 아니라며 반박한다. 류드시엘은 멀린으로 부터 젤드리스의 마력에 대해 묻고 에스카노르에게 협력을 명령하지만 에스카노르는 류드시엘을 향해 건방 MAX 라며 깁다. 나한테 명령하려 하다니 건방 맥스! 큐자크&찬드라:...건방 맥스. 류드시엘이 다시 빨려들어가려 하자 멀린은 보다 못해 에스카노르에게 협력해주라 부탁하고 에스카노르는 받아들여 류드시엘을 구한다. 다른사람 명령은 안듣지만 멀린만은 예외라고. 대신 좋은 작전 아니면 패퇴거라고...

류드시엘의 작전대로 상대의 반격 타이밍을 흐려 놓지만 젤드리스는 어렵지않게 반격해버리고 이에 조금 놀란듯한 표정을 짓는다. 젤드리스는 이제 지루하다며 진심을 내기 시작하자 멀린의 텔레포트로도 벗어날수 없을 정도로 흡인력이 강해지고 멀린 빨려들어가자 스스로 달려들어 멀린을 감싸고 공격을 대신받지만 완전히 막아내진 못해 부상을 입은 멀린을 보고 충격을 받고 '크레이지 프로미넌스'를 발동시켜 무차별 공격을 한다. 찬드라와 큐자크를 휘말리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격이었지만 젤드리스는 멀쩡했고 에스카노르도 충격이 가셨는지 멀린에게 1분만 버티달라 부탁하는데... 이때 존댓말이 아닌 반말을 사용한다.

더 윈이 발동된다.

더 윈 상태의 에스카노르는 젤드리스가 사용한 홍성운(오미너스 네블라)를 무시하며 제 발로 걸어가 신부 릿타를 내려찍는데 오히려 신부 릿타가 미세하게 흠집이 나버린다. 그러자 에스카노르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련없이 신부 릿타를 집어던진 후 성검 에스카노르를 시전해 오미너스 네블라와 풀 리액트를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힘으로 찍어눌러 말끔히 파훼되어버린다. 이에 젤드리스는 수세에 몰려 뒤로 도망치려 하지만 에스카노르는 도망칠 수 없다고 단언하며 젤드리스의 가슴팍에 성창 에스카노르를 꽂아 치명상을 입힌다. 그리고는 아예 꿰뚫어 마무리를 지으려는 순간 에스카노르의 마력이 마엘의 은총임을 간파한 찬드라가 밤을 몰고와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버려 마무리에 실패했지만 젤드리스가 무너진 그 일순간을 놓치지 않은 류드시엘이 마무리를 짓는다.

이후 에스타룻사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전투가 잠시 멈춰지고 찬드라에 의해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에스카노르는 그틈을 타서 전에 던져버린 신부 릿타를 잡고 축적해둔 태양으로 인해 밤에서도 낮의 모습으로 변한다.

원초의 마신과 합을 나누긴 하지만 밀린다. 정오가 지나면 이정도 밖에 안되냐는 원초의 마신의 말에 핸디캡으로 적당하다며 크루얼 선을 사용해보지만 방패에 막히고 그래도 이길수 있다고 하는 등 오만한 모습은 그대로지만 멀린이 공격받는 것에 달려들다가 원초의 마신 뒷발에 맞고 날아가는 등 확실히 압도당한다.

킹의 합류로 한숨을 돌리나 싶더니 성장한 킹의 힘을 보고 놀라는 멀린옆에서 질투심이었는지 건방지다고 깁다(...) 그리고는 젤드리스와 킹이 대치하는 사이 다시 원초의 마신과 공방을 벌이지만 계급이 전부 집결해버리고 그때문에 멜리오다스가

마신왕이되는 걸 막으려는 멀린을 지키다 그만 원초의 마신에게 일격을 맞아 저 멀리 날라가버린다 신부 릿타에 축적된 마력이 고갈된건지 최약상태가 되어 버린 에스카노르는 날라가는 도중에도 울먹이며 아무도 지키지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는데 그렇게 날라가고 있는 에스카노르를 잡아주는 마엘과 재회한다.

마엘과 대화를 나누다가 킹의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지만 네가 빠지면서 카멜롯의 전황은 무척 힘들어졌다."는 발언에 멀린을 떠올리더니 마엘에게 힘을 빌려달라고 한다. 필요하다면 자신의 '태양'마저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그러나 마엘이 거절하자, 자신에게는 '태양'을 건딜만한 수명이 남아있지 않다며, 그러나 '태양'이 없으면 켈드리스와 원초의 마신을 이길수가 없다고 하며, 도저히 받지 못하겠다면 빌려주겠다면서, 그러니 부디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한다.

은총을 돌려받은 마엘의 전투를 보고는 원주인의 활용능력에 감탄하고 마침내 성전이 끝난듯한 분위기에 기뻐하지만 일행과 함께 불길함을 직감하곤 마신왕이 되어 버린 멜리오다스를 대면한다.

멜리오다스의 몸을 마신왕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동료들과 함께 마신왕을 저지하려 하지만 현재상태로는 전투능력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멀린의 퍼펙트 큐브로 대피하고 연옥에서 돌아온 반과 마신왕의 공방을 지켜본다.

마신왕과의 격전이 끝나고 한동안 평화를 되찾았으나 곧바로 다시 켈드리스의 육체를 숙주로 삼아 마신왕이 다시 현세에 모습을 드러내자 킹의 부탁으로 호크와 함께 리오네스 성에 사태를 알리러 간다. 도중 호크가 호크 엄마에게로 이동하자 에스카노르는 피를 토하며 어디론가 사라진 마엘을 찾는다.

이후 길선더가 인듀라의 유체에게 공격받으려 하는 것을 방패로 보호하고 자신은 남은 시간이 별로 없지만 젊은이들에겐 반짝반짝한 미래가 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노병의 할 일이라며 인듀라 유체한테 덤비지만 힘의 격차를 넘어서지 못해 양팔이 날아가고 피투성이 되는 등 죽기 직전까지 물리고 말지만 아래와 같이 독백하며 다시 계속 일어선다.

그렇게 죽나 싶은 순간, 마엘이 나타나서 인듀라 유체를 불태우며 구해진다. 거기에 에스카노르는 마엘에게 선샤인의 마력을 빌려받기를 요구하나 마엘은 에스카노르의 몸을 걱정하며 망설인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일곱개의 대죄하고 같은 전장에 서고 싶다, 그들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다면 자신은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싶다는 에스카노르의 말에 웃으면서 아직 정오까지는 시간이 남았다는 말과 함께 에스카노르에게 손을 내밀고, 에스카노르가 그 손을 붙잡은 순간...

인생의 마지막으로 은총을 빌려 받는다.

마지막에 어설트 모드의 멜리오다스, 신기를 되찾은 반, 날개가 완전히 성장한 킹이 힘을 합쳐 진지하게 상대해야만 막을 수 있는 마신왕의 검격을 정오도 아닌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선을 간단히 돌파해 수도로 간단히 막아내며 등장. 이로써 일곱 개의 대죄 전원과 엘리자베스가 모두 모이게 된다.

동료와 자신의 각오를 위해 마신왕의 앞에 서는 것과 동시에 모든 공격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는 폭풍 간지를 보여주며 제가 실수로 마신왕을 쓰러뜨리기 전이라는 오만함을 보이지만 대미지를 이기지 못해 비틀거리고 말았고, 오만한 발언에 분노하여 제대로 도발이 걸린 마신왕에게 공격받을 뻔하나, 반이 개입하여 마신왕을 걷어 차버린 덕분에 무사하다.

여기에 킹이 마신왕의 움직임을 제지시켜 틈을 만들어준 덕분에 멜리오다스와 고서가 젤드리스의 정신세계에 침입하게 도움을 준다. 그리고 단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반, 킹과 함께 싸움을 이어가는데 에스카노르는 마신왕에게 어퍼컷 한 방 제대로 먹인다.

마신왕과 싸우던 중 예상치 못한 인물이 끼어들자 깜짝 놀라 굳어버린 그 인물이 다름아닌 젤드리스의 연인인 흡혈 공주 게르다로서 마신왕에게 목을 잘리고도 재생해 정신세계로 침입했다는 것을 듣게 된다.

반, 킹과 함께 마신왕과의 전투를 이어가지만 마신왕 쪽은 거의 노 대미지 상태인데다 호수에서 거의 무한히 마력을 흡수해 회복하는 탓에 결국 마신왕의 마법 공격에 3명 다 부상을 입는다. 이에 엘리자베스가 퍼펙트 큐브를 해제하고 셋에게 치유 마법을 사용해주는데 거기에 잠시 한눈을 판 반을 마신왕이 공격하려하자 몸통박치기로 마신왕을 저지시켜 날려버리는 등 마신왕과 엇비슷한 그 체격을 이용하여 일종의 탱커 포지션을 맡는다. 하지만 마신왕만 신경쓴 사이 보호막을 해제해 무방비 상태가 된 엘리자베스가 번개에 공격당하기 직전 번개가 반사되고 곧 뒤에서 거대한 참격이 날라오자 반과 함께 몸을 피하는데, 다름 아닌 젤드리스의 정신세계에서 나온 멜리오다스의 일격으로 이제 더이상 거릴길 것도 없다는 듯 "그럼...슬슬 진심으로 가볼까"라며 말투가 반말로 바뀐다!!!

본래 거인족 사이드로 돌아온 다이앤이 대지창조를 이용해 호수 주변의 지형을 재창조해서 호수를 없애버린다. 이로써 마신왕의 무한한 마력을 주었던 호수를 차단함으로서 기세를 탄 일곱 개의 대죄 전원 마신왕 토벌을 준비. 그리고 에스카노르는 불타오르는 손가락을 하늘로 치켜들며 마신왕에게 한가지 비보이자 낭보를 알려준다.

드디어 때가 왔다고 읊조리며 다른 단원들에겐 방해하지 말라며 물리고선 홀로 마신왕과 마주하며 싸움에 들어간다. 두사람의 싸움은 그야말로 박빙으로 서로에게 펀치를 주고받다가 마신왕의 일격에 날아가버리지만, 그저 아플뿐이라고 일침하며 마신왕을 주먹으로 내리치는데, 그 일격에 마신왕이 한쪽 무릎을 꿇는다!!  
네놈의 일격에서는 아무 것도 느낄 수 없다.

영문모를 소리나 지껄이지 말라며 공격해오는 마신왕이지만 에스카노르는 그대로 박치기로 되돌려주고 서로 주먹을 주고받는다. 하지만 고작 1분 동안 마신왕을 이길 수는 없었고 결국 시간초과로 인해 더 원이 해제되자 마신왕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한 주먹에 배가 꿰뚫린다

그러나 에스카노르는 배가 꿰뚫리고도 더 원이 초라해보일 정도로 더더욱 불타오르기 시작한다.

발동된 '더 원 얼티밋'은 이름에 걸맞게 더 원을 초월한 파워를 선보인다. 하지만 그 정체는 에스카노르의 모든 생명력을 마력으로 치환한 것으로, 회광반조를 의미 그대로 구현화시킨 것이었다. 에스카노르의 복부에 주먹이 꽂힌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는 마신왕이 벗어나기 위해 반대쪽 주먹으로 무차별 공격에 별다른 타격은커녕 미동하나 없이, 에스카노르는 마신왕을 일방적으로 폭행한다. 이에 마신왕이 빈틈에다 어퍼컷 한 방으로 반격해 보지만, 에스카노르는 가소롭다는 듯이 단 한 방으로 마신왕을 저 멀리 날려버버린다. 그러자 마신왕은 장난은 여기까지다라고 소리치며 검은 마력의 구체로 공격해오자 이에 멜리오다스의 '카운터 배니쉬'에 의해 저지당하고, 이어서 반의 배니싱 킥, 킹의 파이트 파이어 위드 파이어가 마신왕에게 직격한다.

자신의 싸움에 기여든 단원들에게 소리치며 성큼성큼 전진하던 중, 앞을 가로막은 멜리오다스를 보고 멈춘다.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멜리오다스에게 비켜라고 명령하지만, 멜리오다스는 비키길 원한다면 힘으로 해보라며 받아치고, 자신은 너에게 이런 짓을 시키기 위해 일곱 개의 대죄에 부른게 아니라 일갈한다. 에스카노르는 아직 자신의 힘을 다루는 법을 몰라 폭주하던 때 몇번이고 몇번이고 멜리오다스에게 완벽하게 깨졌던걸 기억하냐고 묻고, "오만하게도 네놈은 그 작은 몸으로 '선사인'의 사용법을 가르쳤고, 건방지게도 네놈은 고독했던 내게 마음 편한 장소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그게 얼마나 기뻐는지 아냐고 반문한다.

그런 두사람의 대화 중에 마신왕이 흥측하게 생긴 거대한 괴물을 소환하자, 가장 먼저 돌격한다.

나는 지금껏 내 자신에게 맹세해왔다. 한때는 놓으려 했었던 목숨! 너를 위해! 동료들을 위해 질겠노라고!

혼자 간직하고 있던 각오를 외치며 혼자 나아가지만 멜리오다스를 시작으로 뒤따라오는 동료들과 함께 마신왕이 소환한 괴물을 순식간에 증발시킨다. 불쌍한 괴물 그리고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자신을 용서하라며, 일곱 개의 대죄 전원에게 명령을 내린다

멜린, 반, 고서, 킹, 다이앤

단장... 용서해라... 나는 이제 물러설 수 없다... 그러니 지금부터 너희들 모두에게 명령을 내리겠다.

나도 함께 싸우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신세계에서 젤드리스가, 현실에선 일곱 개의 대죄가 각각의 혈전을 벌이면서 드디어 마신왕을 패퇴시키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마신왕의 부활을 위해 젤드리스 안에 모였던 10 개의 계급들이 젤드리스의 육체로부터 떨어져나가기 시작한다.

계급에 갇든 마신왕의 의지가 다시한번 젤드리스를 노리지만 반이 저지한다. 그러자 마신왕이 계급과 함께 하늘 위로 날아올라 폭발하듯 흩어진 계급들이 닥치는 대로 브리타니아의 대지와 그 위의 동식물들, 심지어 바위산까지 흡수하기 시작한다. 심상치 않은 사태에 곧장 멜린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다름아닌 마신왕은 브리타니아의 대지 그 자체를 새로운 그릇으로 삼는다는 것으로 지형까지 삼켜 비대해진 마신왕의 새로운 모습은 브리타니아 전역에서 그 모습이 보일 정도였다.

기사단 전원 돌격해오자 마신왕의 마법 공격 '데스 제로'의 과중력에 저지당한다. 하지만 과중력안에서도 손을 뻗어 크루얼 썬을 발사해 공격하지만 움직이는 대지나 마찬가지로 마신왕에겐 대미지란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이를 격파하기 위해 캐스팅을 끝낸 멜린의 마력 한계 돌파로 넘쳐나는 마력으로 데스 제로를 찢어내자 파이널 프로미넌스를 사용해 다른 일행들의 마법공격과 하나로 합한다. 마신왕은 데스 제로로 이를 격추하려고 하지만 일곱 개의 대죄 기사단의 합체기가 이를 간단히 분쇄하자 마신왕은 멜리오다스에게 가족의 정을 호소하자 합체기를 폴카운터로 튕겨내는데, 이걸 노린 마신왕이 멜리오다스를 공격하지만 잔상. 구제할 길 없는 쓰레기라 다행이라면서 폴카운터로 합체기의 위력을 증폭시킨 후 그대로 <일곱 개의 대죄> 합기 불구대천으로 마신왕을 끝장낸다.

불구대천의 폭발을 방어한데다 마력 한계 돌파를 사용한 부작용으로 다른 인원들과 마찬가지로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등장. 몇몇은 상처를 입어 엘리자베스의 치유마법으로 정신차린다. 허나 마신왕의 사라진 자리엔 계급이 남아있었다. 신을 쓰러트리는 것과

소멸시키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지만, 멜리오다스는 자신의 진정한 매력인 마신왕 모드의 힘을 개방해 이를 대가로 삼아 마신왕의 계급을 모두 없애버리며 싸움이 끝난다.

마신왕과의 전투가 끝나고 젤드리스와 게르다를 배웅해준 일곱 개의 대죄 단원들에게 모두들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가라고 한다. 그러자 "너도 함께"라며 "계속 거기 서있지말고 같이 돌아가자"는 단원들의 말을 듣지만 에스카노르의 육체는 최후의 생명력까지 짜내 불태운 선샤인의 대가로 육체가 이미 숯덩이처럼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한계가 온 에스카노르는 차례차례로 동료들과 작별인사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멀린에 대한 마음을 고백한다. 이에 멀린은 자신은 그저 에스카노르를 실험체로서 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웃지만 에스카노르는 그런 식으로라도 멀린의 마음 한구석에 살아갈 수 있으면 족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에스카노르의 진실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3 천년만 빨리 자신을 찾아주길 바랬다며 매우 마음 아파하는 멀린에게 당신이 무슨 죄를 짴든, 무슨 선택을 하든 자신은 언제나 멀린 편이라며 멀린을 위로한다.

크게 당황한 멀린의 질문에 처음 만난 때부터 당신은 항상 슬픈 눈이었다는 미소와 함께 답한 뒤 몸이 타들어가다 못해 재가 되어 흩날리기 시작한다. 시간이 다 되었다며 부디 건강히 지내라 작별을 고하며 모두에게 위험하니 떨어져 있으라고 하는데 그 순간 멀린이 열기를 무릅쓰고 에스카노르에게 다가와 불타는 에스카노르에게 키스를 하더니 입가에 화상을 입으면서 네 마음에는 응해줄 수 없었지만 너가 이 세상에 살았던 증거이자 자신을 사랑해준 단 한 남자의 표식을 이 몸에 새기겠다고 말하며 에스카노르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겠다고 선언한다. 여담으로 팬북 <브리타니아의 영웅담>에선 멀린의 이 대사를 축복이라고 언급했는데 에스카노르의 소망이 멀린의 사랑이란 것을 생각하면 매우 의미심장하다

멀린에게 축복을 듣자 에스카노르는 눈물을 흘리며 유언이자 최후의 시를 멀린에게 읊어주고 행복한 미소로 영면을 맞이한다. 몸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잿가루가 되자 잿가루는 칠대죄 동료들과 마엘, 사랑했던 멀린의 주위를 감싸고 지나갔던 에스카노르의 영혼과 함께 하늘로 떠나갔다. 그리고 반파된 릿타 주변에는 멤버들이 꽃 한송이씩 놔준뒤 떠난다.

첫장면, 강렬한 태양빛이 마치 추모하듯 대지를 비추며 한 주민의 태양이다...라는 말로 에스카노르의 죽음을 표현한다.

" 미인의 얼굴이 안타깝게 되었다 "는 주위의 수근거림과 안타까움에도 멀린은 에스카노르와의 키스로 남은 화상을 지우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자 고서는 그 상처가 있는 한 에스카노르는 멀린 안에 계속 살아갈 것.이라며 그의 죽음을 기렸다. 멀린의 사랑을 원했던 에스카노르의 꿈이 어떻게 본다면 조금은 이루어진 셈.

이렇게 오만하면서도 벼들을, 그리고 사랑을 위해 자신까지 버려가면서 싸워간 한 남자의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

- 명대사



나의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고 누가 정했지? 나의 태양을 집어삼켰다고 누가 정했지? 정하는 건 나다. 죽어라.

그나저나 당신들은 어리석은 데다가 운도 없군요.

"인간입니다. 다만, 모든 종족의 정점에 선 자이기도 하죠. 이 몸이 바로 일곱개의 대죄, 오만의 죄라이온 신, 에스카노르 님이시다."

"왜 아픈가 했더니 내 공격이라서였군요. 역시 이 몸이야."

인간이 널 내려다보니 기분이 어떤가?

나한테 명령하려 하다니 건방 맥스!

어지간히 내게 박살나고 싶은 모양이로군. 때가 되었다.

모든 것은 친구를 위해.

아무런 힘도 없는 나 따위를 동료로 인정해줬으니까...  
낮의 나도 밤의 나도 똑같이...다들 정말로 강하고 정말 다정해...  
그런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워왔어.  
그것이 나의 긍지야.

나는<일곱개의 대죄>...교만의 죄라이온 썬 에스카노르다.

친애하는 벗을 위해 사력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부터 우리 일곱 명이 이를 업적에 비하면 사소한 일입니다!"

그럼...슬슬 진심으로 가볼까

그리고, 방금 전 네놈에게 슬픈 소식이 하나 추가되었다.  
정오다.

네놈의 일격에서는 아무 것도 느낄 수 없다.

나는 지금껏 내 자신에게 맹세해왔다. 한때는 놓으려 했었던 목숨! 너를 위해! 동료를 위해 걸겠노라고!

고서 군. 당신은 저의 좋은 말동무 였어요.

킹 군, 다이앤 씨.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게 아쉽지만 부디 행복하세요.

엘리자베스 님, 페하와 헨디 군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세요.

마엘 씨... 마지막까지 신세가 많았습니다.

반 씨. 술은 적당히 드세요.

단장. 당신은 제 평생의 은인이자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멀린 씨.

계속 당신을 좋아했습니다.

결코 로자를 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은 이런 저를 다른 누구와도 차별하지 않고 대해주었어요.

"여...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뭐, 상대가 저였으니 어쩔수 없겠지만요

안마 실력이 그럭저럭이군요

제 시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군요....

여유를 부리는 것이 강자의 특권입니다.

전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요.

실컷 발버둥 쳐보시길

네놈은 강하다. 나 다음으로 말이지

태양은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깃들어있던 힘. 은총이 스스로 나를 선택한 것이죠

나와 같은 편인 이상 승리는 약속된거나 마찬가지니까

호오. 제 일격을 맞고도 상처하나 없다니, 건방지시군요

허풍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제게 명령하려하다니 거만함 MAX 군요.

저는 제 자신의 마음이 가는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때는 무르익었다. 더 원.

전부 자기 탓으로 돌리다니 오만한 생각입니다.

일곱 개의 상처를 마음에 새긴 영웅들이여.'

'그대들에겐 두려움도 절망도 존재하지 않으며'

'믿는 것은 용기와 긍지, 그리고 우정.'

'운명에 농락당해 한 번은 포기했던 삶,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운명에 감사한다.'

'친애하는 벗을 위해 사력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신장: 165cm~325cm (낮에는 늘어나고 밤에는 줄어든다)

특기: 호수 증발시키기

체중: 49kg~355kg (낮에는 늘어나고 밤에는 줄어든다)

취미: 에일 제조

종족: 인간

일과: 낮잠과 시 짓기

생일: 7 월 1 일

좋아하는 음식: 낮에는 고기, 밤에는 채소

나이: 40 세

차밍포인트: 낮가림

혈액형: AB 형

콤플렉스: 자기자신

쓰는 손: 오른손

존경하는 인물: 멀린, 멜리오다스

기사 랭크: 금강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은 인물: 멀린

마력: 태양 선샤인

신기: 신부 (神斧) 텃타

꿈: 멀린의 사랑

일곱 개의 대죄의 등장인물. 작중에 등장하는 동명의 기사단 '일곱개의 대죄'의 일원이다. 일곱개의 대죄 중 '오만의 죄 - 라이언 신 (Lion Sin)'를 담당한다. 오만의 죄를

상징하는 사자의 낙인은 등에 새겨져 있다. 표지에서 모습이 살짝 나왔다가 본편에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며 등장한다.[그리고 OVA 오프닝과 마지막에서도 아주 잠깐 모습을 비춘다. 에스카노르가 가진 짐승의 낙인이 사자인 것은 본작에서 멜리오 일행이 일곱 개의 대죄의 일화를 가지고 소꿉놀이를 하는 도중 지나가듯이 언급된 것이 전부이며, 이후 애니메이션 PV에서 사자의 죄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거론 되었다. 일인칭은 보쿠-와타시-와레.

성격 낮이 아닌 평소 모습일 때는 오히려 매우 소심하고 (특히 멀린과 엠티 일에서라면) 다소 자기 비하적일 정도로 스스로를 낮추는 성격. 외관상으론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 언제나 공손한 말투를 사용하는 존댓말 캐릭터. 다만 낮이 되면 성격이 180도 반전되어 죄의 명답게 오만해져서 반말 캐릭터가 된다.그리고 무진장 강해진다. 낮의 모습은 한없이 진지하고 오만하나 앞서 언급했듯이 외전에서 멀린의 해수(아쿠아 드레스) 수영복을 보고 코피를 뿜고, 자투리 코너에서는 아예 멀린이 만든 마법 도구를 호크만 받자 이에 질투를 해 멜리오다스가 만든 잔반을 빨리 먹기하는 대결을 한다.(...) 대결에서 승리하긴 하나 맛있는 잔반을 입에 가득 넣고 불이 뽕뽕해진 우스운 모습인데다 멀린에게 받은 마법 도구가 배변 캔디라 이틀간 화장실에서 사는 등 멀린과 엠티는 것 한정으로 상당히 망가지는 개그 캐릭터가 된다. 사랑하는 멀린을 위해서라면 실험 동물로 취급받더라도 상관없다고 말할 정도로 작중 최고의 순정남이자 메가데레. 킹과 비교해봐도 눈에 확 드러날 정도로 대놓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다니고 자나깨나 멀린 찬양에 여념이 없는 등, 같은 팀의 순정남 동료들이 그렇듯이 이쪽도 어지간한 멀린 바보다. 또 대죄 동료들을 굉장히 아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인의 언급이 중요한 장면마다 꼭 나온다. 젤드리스와 한 판 불을 때어도 마신족과 여신족 사이의 오랜 앙금에서 비롯된 전쟁에 인간이 끼일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도 모든 것은 전부 벗을 위해. 라고 답하고 인듀라전에서 죽기 직전까지 몰림에도 대죄 동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어 자랑스러웠다고 독백하며, 마신왕과 전투에서도 시간을 끌며 은총을 무리하게 쓰면 죽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도 '일곱 개의 대죄 동료들과 함께할 수 있기에 마지막 싸움으로 어울린다.'라고 한다. 일곱 개의 대죄 안에서조차 굉장한 동료애를 보이는 인물.

힘 그의 마력의 원천은 모든 생명의 근원인 선샤인.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정오에 가까워질수록 매우 강력해지지만,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질수록 힘이 약해진다. 능력의 원천은 원탁의 기사 중 가웨인과의 관련된 일화에서 나오는 에스카노르. 가웨인과 마찬가지로 태양이 뜨면 강해지고 지면 약해진다. 즉 쉽게 요약하면 슈퍼맨(크립톤인)처럼 필드 버프를 받는 캐릭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약육강식같은 먼치킨, 무쌍 타입이 아니라 약점이 명확하고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한 타입. 밤일 때는 극도로 약해져서 평균 인간 이하의 최약체로 전락한다. 호크보다 약한 수준이라 전력으로 칠 수 없다.

전투 스타일은 압도적인 파워로 적을 압살하는 것이다. 워낙 강력해서 체계적인 전투 기술은 익히지 않았는지 기술 대부분이 텔레폰 펀치처럼 동작이 크고 빈틈이 많다. 하지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피하지도 못하고 설령 막더라도 큰 대미지를 입을 정도이다. 태양의 마력답게 공격 대부분이 강렬한 열을 동반한다. 태양의 힘으로 호수 근처에서 공격을 하면 호수가 전부 증발하고, 아침에서 정오 사이의 시간대에서 태양의 힘을 발현하면 주위의 바위는 기본이고 성기사들이 입고 있는 갑옷의 철까지 녹인다.

최상위 마신족인 멜리오다스는 특유의 장난끼가 묻은 대사이긴 하지만 자기보다 강하다고 인정했다. 그의 강함은 십계와 사대천사 같은 상위권 강자들도 비정상적이라고 혀를 내두를 정도이며, 정오일 때는 어설트 모드의 멜리오다스를 압도했다. 만약 모든 생명력을 불태울 경우 마력을 사용하지 않은 순수한 육탄전 한정이라고는 하나 마신왕과의 일대일 싸움에서

우세를 점할 정도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한다. 낮 상태일 때는 거의 무적에 가깝지만 취약점은 있다. 정오에 가까울수록 힘에 취해 점점 오만해져서 멀린을 제외하면 동료들도 그를 말리기 힘들어한다. 또한 어지간한 공격은 피하지도 않아서 모락에 능하고 특수한 능력을 사용하는 적을 상대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하지만 상술했듯 너무 강해서 별 문제는 없다. 또한 너무 강력하다는 것도 문제인데, 아군이 뒤엎킨 난전에서는 아군이 휩쓸릴 가능성이 있어 힘을 사용하기 힘들다. 에스타룻사전에서 성기사들이 그가 평상시에 내뿜는 기운만으로 갑옷이 녹아내려서 버티기 힘들어하자 큰 호수가 있는 곳으로 유도해야 됐다. 즉 에스카노르가 전력을 내기 위해서는 일대일 싸움이나 그의 곁에 있을 정도로 강한 아군이 있어야 한다.

은총에 의지해서 시간대에 따라 투급 수치가 달라지지만, 에스카노르가 싸움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이 묘사된다. 가장 멜리오다스와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정오임에도 불구하고 마신화한 멜리오다스에게 한 방에 패배했지만, 시간이 이보다 오래 흐른 칠대죄 본편 중반부에서는 치열한 접전 끝에서 간신히 승리했다. 마신왕과의 최종결전 시점에서는 회광반조로 더 원 얼티밋을 발동하여 전성기의 마신왕과 대등한 싸움을 벌였고, 우세를 점하다 나중가서는 밀렸다.

선 샤인 태양 태양의 힘을 다룰 수 있으며 낮 한정으로 모든 능력치가 대폭 상승한다.

신부(神斧) 릿타 태양에게 사랑받은 처녀의 이름을 딴, 여신의 형상이 장식되어 있는 금빛 한손 도끼이다. 매우 무겁다고 하는데 그 무게 갈란조차도 설게 미스라고 할 정도로 엄청 무겁다. 또한 소유자의 부름에 응답해서 자동으로 소유자에게 날라가는 기믹도 존재한다. 신기에 축적돼있던 태양의 힘으로 밤에도 낮의 형태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

특히 밤에도 낮의 힘을 얻게 해주는 2번 효과가 에스카노르의 고질적인 단점을 없애준다. 의도적으로 밤을 불러대는 능력을 가진 적에게도 어느 정도 대항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원초의 마신과의 전투에서 박살났기에 이후로는 위의 능력에 기댈 수 없는 상태.

여담으로, 팬들 사이에선 릿타를 버리고 맨손으로 싸우는 게 훨씬 강하지 않냐는 우스갯소리가 돌고 있다. 멜리오다스와 싸울때 성검 에스카노르는 아예 상반신을 세로로 찢어버렸고, 고치 공방전의 젤드리스는 성장 에스카노르에 꿰뚫려 즉사할 뻔 했고, 그저 더 원 뿐만 아니라 젤드리스의 육체를 장악한 마신왕과의 전투에서도 릿타가 아닌 맨손을 사용한 공격이 더 상대에게 많은 대미지를 입혔고 더 원 얼티밋으로 몰아붙혔다.

즉, 정말로 릿타 드는 것보다 맨손으로 공격할 때의 위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다른 단원들과는 다르게 그에게 있어서 신기는 밤을 제외하면 그렇게 전투력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릿타의 기능은 전투 지속시간을 늘려주는 것 외에도 차지한 태양의 마력을 방출해 화력을 올려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아예 전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에스카노르와 전성기 시절 멜리오다스와의 우열은 팬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떡밥 중 하나였고, 과거에 멜리오다스가 본인 입으로 에스카노르는 나보다 강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멜리오다스 특유의 능글거리는 성격 때문에 진담인지 농담인지 알긴 힘들지만 설령 농담이라 하더라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에스카노르의 막강한 전투력을 입증해주는 확실한 증거이며, 반면 멀린은 기억과 형태가 쉽게 시절의 과거로 회귀한 멜리오다스를 보고 에스카노르에게 지금의 단장 공은 너에게도 벅찬 존재다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멜리오다스든 에스카노르든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간단히 압도할 만큼 쉽게 우열을 가릴 만한 수준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선샤인의 숙련도가 미숙했던 외전에서는 멜리오다스에게 단 한 방에 패배했지만, 일곱 개의 대죄로서 실력이 숙련된 시점에서 벌인 결투의 결과는 에스카노르의 승리였다.

전투력으로만 따졌을 때, 정오의 1 분이 끼여있는 에스카노르가 1~2 시간정도 교전하면 당시의 어설트 모드의 멜리오다스와 대등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문제는 아래에 서술된 격전 직후의 상태변화이다. 에스카노르 에스카노르도 격전 직후 멜리오다스처럼 맥없이 쓰러졌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멜리오다스한테 너무 맞아버려서 이미 정오 이전에 맞을대로 맞은터라 에스카노르도 체력적으로 한계가 왔었다. 고서의 측정으로 에스카노르가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인증했다. 자세한건 아래에 서술. 본인 힘의 반동 또한 문제가 되었던게 힘의 원주인 마엘은 은총을 받기 전에도 여신족 최상위권의 강자인데다가 십계와 사대천사의 강함 비율은 엄연히 1 : 2 이상이다. 그런 마엘이기에 폭발적인 태양의 힘 정도야 무리 없이 활용할 수 있었겠지만 에스카노르는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약골 수준의 말라깽이이다. 평범 미만의 인간이 이런 강대한 힘을 남용해버렸기에 몸의 부담이 커져버린 것. 멜리오다스 격전 당시에는 에스카노르의 더 원으로 인해 리타이어당한 멜리오다스가 저평가 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평가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싸움 이후의 마신족의 압도적인 회복력이 평가를 바꾸는데 일조했다. 멜리오다스는 마신왕 제외, 명실상부 마신족의 최강자로, 적어도 마신족 내에서 십계 시절의 멜리오다스에게 속된말로 개길 수 있는 인물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신족이 어떤 종족인가? 세계관 내에서 그 어떤 종족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막강한 자가회복력을 자랑한다. 이 회복력은 확실히 상위 마신일수록 더욱 강해지며 그렇다는 것은 멜리오다스의 회복력 역시 마신족 탑클래스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멜리오다스가 정신을 차린건 둘이 격전을 벌이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에스카노르는 반나절이 지나도록 일어나지 못했다. 에스카노르가 피해를 더 받긴 했어도 둘의 피해는 이미 반절을 한참 넘겼기 때문에 둘 다 위험 상태였고, 애초에 이정도의 시간차면 누가 피해를 더 받고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외로 힘의 효율성이다. 에스카노르는 확실히 멜리오다스를 쓰러뜨렸다. 더 원이 발동된 단 1 분 동안에만. 고치 공방전의 상황을 보면 젤드리스 하나 잡겠다고 그 강력한 더 원의 지속시간을 상당히 허비해버렸을 뿐더러, 이렇게 된다면 전략을 짤 여지가 충분했던 나머지 찬드라와 큐자크를 어떻게 대처하냐는 것이다. 이러면 아무리 1 분 동안의 절정의 상태가 되어도 의미가 없다. 반면 멜리오다스는 섬멸 모드의 특성상 24 시간 내내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마신족의 특성상 밤에는 어둠의 힘이 증폭되어 더 강해지기까지할 뿐더러 격전 직후 멀린의 언급으로 멜리오다스가 내뿜는 장기가 더욱 강해진다고 하는데 이 역시도 멜리오다스가 점점 전성기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평가가 갈리는데 에스카노르의 목적이 살상이 아니라 제압이기에 멀린의 말이 나온 것이니 멜리오다스 이상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파랑 멜리오다스 상대로 한계까지 싸워서 추가타를 못 줬다등 여러 기타 이유가 있기에 멜리오다스가 더 강하다는 파로 나뉜다

마신왕은 직접 더 원을 보곤 자신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이라고 말했다. 이전을 능가하는 더 원 얼티밋이 발동되어 전성기 마신왕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모습은 진짜 생명력을 불태워 사용하는 기술로 조건 한정 스펙의 차이로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멜리오다스와 에스카노르의 전투력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으며, 종합적인 전투력은 대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막강한 힘을 단순한 인간이 가지고 있고, 자신마저 악화시킬 정도로 무식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여러 인물이 의문을 가졌고 결국 사대천사 류드시엘에 의해 3 천년 전 십계에게 살해된 본인의 동생이자 최강의 사대천사인 마엘의 은총이 깃든 것이라고 한다. 어째서 그 은총이 현재 에스카노르에 깃들었는지는 불명. 이 점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여지껏 에스카노르와 싸우거나 싸움을 관찰한 인물 중 에스카노르의 힘이 은총인걸 눈치챈 건 2 차 성전 당시 젤드리스와 대치하던 상황에서의 찬드라 뿐이었다.

도끼에 썰리고 끝난 갈란이야 모를 수 있다고 쳐도 흔까지 삼키고 불탄 메라스쿨라, 크루얼 선을 맞고 불탄 에스타룻사, 특히 특별편에서 직접 마엘과 대치했던 멜리오다스, 젤드리스와 류드시엘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악명이 자자한 멀린이나 같은 여신족인 엘리자베스가 있었는데도 3000 년 전 성전시대의 인물들은 눈치채긴커녕 말도 없었다.

이는 본편과 극장판 부록에 나온 마엘의 전투 스타일로 대강 유추할 수 있는데 본편에서 고서(십계)에 의해 과거 포로가 된 마신족을 학살할 당시에는 검으로 처리했으며 십계 하위권 수준으로 추정되는 전투력을 가진 흑의 6 기사 대장인 벨리온을 상대로는 그냥 열만 발산했는데도 벨리온이 타죽기 직전까지 갔다. 즉, 너무 강해서 본인이 힘만 살짝 방출해도 전투력이 낮은 십계정도는 손도 안쓰고 태워죽일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마신족의 경우 대부분이 모를 수가 있다.

여담으로, 은총은 본래 최고신에게서 마엘이 받은 힘이다. 후천적으로 얻은 마력이라는 것. 멜리오다스의 폴 카운터가 기술로 밝혀짐에 따라 본래의 마력이라는 떡밥이 나왔듯이 에스카노르도 자신만의 마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에스카노르가 은총을 발동하는 도중에는 그 시간에 맞춰서 점점 덩치도 커짐은 물론, 성격적으로도 계속해서 오만해진다. 하지만 추후 은총이 다시 마엘에게 되돌아 갔을 때 마엘은 덩치가 커지지도 않고 성격이 오만해지지도 않았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불명. 추후 밝혀진 바로는 낮의 에스카노르와 밤의 에스카노르는 사실상 다른 인격으로, 밤의 에스카노르는 낮의 에스카노르를 괴물 취급하고 낮의 에스카노르는 밤의 에스카노르를 약골 취급한다. 막 각성했던 어린 시절에는 힘조절을 못해 남을 다치게 했을 뿐 성격은 그대로였으니 덩치는 어찌됐든 성격의 변화는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로 인해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기제인 듯하다.

또한 어떻게 마신왕에게 몰아붙일 정도의 힘을 얻었는지도 의문이다. 그 전엔 더 원이 아니라면 마신왕은커녕 어설트 모드 멜리오다스에게 상대도 되지 않았는데, 정오와 엄청 가까운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마신왕에게 대미지를 준 건 매우 이상하다.

젤드리스의 육체를 장악한 마신왕전에서 에스카노르의 비상식적인 파워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으나 작중 에스카노르 본인의 언급과 태양의 원주인 마엘의 말에 따르면 마엘에게서 태양의 은총이 떨어져나가고 3000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기다려 마침내 에스카노르를 선택했다는 말을 보아 에스카노르 본인이 은총 스스로가 선택할 정도로 다른 인물에 비해 은총에 대한 적합도가 높거나 그에 준하는 특별한 존재였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그 마신왕조차 더 원의 힘에 감탄했으니 에스카노르의 더 원은 평균적인 선샤인의 힘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부모 & 형제: 카스텔리오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던 에스카노르는 부모에게 사랑 받았다. 이를 질투한 형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때 은총의 힘이 폭주해서 형의 팔을 부러뜨린다. 부모도 폭주하는 에스카노르를 받아들이지 못해 괴물 취급하며 왕국에서 내쫓았다. 현재 카스텔리오 왕국은 멸망했다고.

로자: 부모에게조차 버림받았던 에스카노르에게 변함없는 태도를 보여준 여인. 왕국에서 토벌명을 받은 에스카노르를 밤중에 몰래 배에 실어 도망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 후 왕국이 멸망했을 때 로자도 죽은 모양. 에스카노르는 멀린의 도움으로 사자의 도시에서 재회해서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말할 수 있었고 삶의 각오를 다지며 비관적이었던 인생에 대한 태도를 바꿀 것을 선언했다.

일곱 개의 대죄 기사단: 멜리오다스: 은총의 폭주로 고통받았던 에스카노르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은인. 에스카노르는 멜리오다스의 도움으로 일곱 개의 대죄로 들어가서 동료들 얻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었다.

멀린: 영원한 태양이자 첫사랑. 처음에는 외모가 로자와 닮은 멀린에게 끌렸지만, 그 이후 그와는 별개로 자신에게 변함없는 태도로 대하는 멀린에게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다. 밤이든 낮이든 멀린에게 열렬히 구애하지만, 그때 당시 멀린은 에스카노르에게 이성으로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 십수년이 흘러 멀린은 아서 펜드래곤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여전히 에스카노르의 마음을 받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에게 구애하는 에스카노르에게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고 만약 3 천년 전이었다라면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비록 에스카노르의 고백은 받아주지 못했지만 죽기 직전 키스를 해 그에 대한 흔적을 남기며 영원히 그를 기억하겠다고 선언하며 마지막을 지켜준다. 에스카노르는 유언으로 언젠가 반드시 멀린의 고독한 마음을 채워줄 이가 나타나길 바라는 시를 읊으며 승천했다.

반: 사이 좋은 동료. 평상시에는 반에게 찢절매지만 낮 상태에서는 역으로 반을 혼쫓낸다.

킹 & 다이앤: 사이 좋은 동료. 킹과 다이앤의 사랑을 응원했으며 결혼식에는 참가하지 못하지만 둘의 행복을 기원했다.

고서: 마음이 없는 고서는 에스카노르의 역린을 건드려서 그의 분노를 샀다. 하지만 에스카노르는 그 이상으로 고서를 소중한 동료로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싸움을 붙인 글록시니아와 드롤에게 분노의 일격을 날렸다. 워낙 성격 차이가 커서 낮 상태의 에스카노르에게 허물없이 대하는 사람 중 한명이다.

엘리자베스 리오네스: 리오네스 왕국의 삼녀인 엘리자베스와는 친한 동료 사이이다. 멜리오다스의 연인인 그녀를 구함으로서 친구 멜리오다스를 도우려고 했다.

호크: 낮 상태에서도 호크가 스스로 없이 다가와서 제법 친분이 있다. 하지만 호크가 멀린의 실험체로서 특별 취급 받는 것에 질투해서 멜리오다스의 잔반 빨리 먹기 대결을 벌였다. 장렬한 승부 끝에 멀린에 대한 사랑으로 에스카노르가 승리하지만 보상으로 얻은 멀린의 절대강제 배변사탕으로 이틀내내 화장실 신세를 진다.

마엘: 은총 선사인의 본래 주인. 마엘과는 은총으로 이어졌으며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사이이다. 마엘과 직접 만났을 때 마신왕전에서 전력이 되지 못한 자신을 대신해서 마엘에게 은총을 다시 가져가 싸워줄 것을 부탁했다. 그동안 과오로 에스카노르에게 힘을 빼앗는 걸 죄책감을 느낀 마엘이 망설이자 오만하게 힘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돌려준다. 마지막 결전에서 힘없는 상태로 인듀라의 유생과 싸우다가 죽을 뻔한 에스카노르의 마음을 듣고 마엘은 다시 한번 지상으로 강림하는데, 이미 수명이 거의 없는 걸 직감해서 마지막으로 동료들과 함께 싸우고 싶었던 에스카노르는 부탁을 하여 돌려준 은총을



빌려받아서 마신왕과 싸운다. 마엘은 이때 에스카노르의 결말을 예측해서 그를 애도했고 대죄 멤버들과 함께 그의 마지막을 지켜봤다.

아서 펜드래곤: 서로 접점은 없지만 멀린을 짝사랑하는 에스카노르는 그녀의 가장 소중한 대상인 아서를 질투했다. 사실 아서와 멀린은 연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사제로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는데, 멀린의 관심 자체를 특별하게 여길 정도인 에스카노르에게는 별 다를 바는 없다. 하지만 자신이 아무리 용을 써도 그를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에 낙담한다.

#### 작중 행적

과거 회상편과는 다르게 안경을 쓰고 콧수염을 기른 상태로 동굴 깊숙한 곳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술집 이름이 아름다운 폭식(...)인데다 벽면에 한 손 도끼가 걸려 있고 들고 있는 술병에는 'Seven Deadly Sins'라고 쓰여있다. 반과 아는 사이임을 확인 시켜주며 제일 먼저 멀린의 안부를 물었다. 일곱 개의 대죄에 대한 오해도 풀렸다는 것 또한 확인, 반 일행을 창고에 숨겨준다. 곧장 갈란과 메라스큐라가 쫓아오지만 둘은 3000 년 만에 맛 보는 술에 정신이 팔려서 잔뜩 취한다.

창고에 반 일행이 숨어 있다는 건 진작에 간파당하고 있었지만 술 기운 탓에 방심한 탓인지 갈란이 에스카노르에게 게임을 하자고 제시한다. 일명 갈란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의 내용은 극히 단순한데 1:1 데스 매치로 무기와 선공을 정한 뒤 번갈아가며 어느 한 쪽이 죽을 때까지 공격하는 것. 원펀치 갈란이 협박하자 울며 겨자먹기로 한다고 동의했지만 이에 신나서 갈란이 때린 등짝 한 방에 날라가 게임도 못 해보고 기절 해 버린다

시간이 지나 아침이 되고 갈란이 벽에 걸린 도끼를 집어들고 너무 무겁다, 손잡이 디자인이 잘 못 되어있다는 등 불평하는 사이 근육질인 낮의 모습으로 변해 도끼를 빼앗아 쥐고 사람이 맞느냐고 묻는 갈란에게 자신은 인간이지만 모든 종족 중에 정점이라며 오만의 죄 에스카노르라고 이름을 밝힌다.

갈란이 오만하다며 웃자 그에 응해 주듯이 호쾌하게 웃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갈란을 두 동강 냈다. 이 모습에 메라스큐라는 소름을 느끼며 3000 년 전에 이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기겁하지만 갈란은 곧 바로 부활, 십계를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을거라 생각지 말라고 외치는 갈란에게 물론이쥬. 너무 빨리 죽으면 게임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라고 화답. 메라스큐라는 갈란이 한 방에 죽지 않도록 봐줬다는 듯한 말투라며 오만함을 꼬집고, 갈란은 조금전 일격에 자극을 받았는지 보통 녀석이 아니라 전력을 다해 싸워야 한다고 본능적으로 느꼈다며 숨겨두었던 힘인 임계 돌파(크리티컬 오버)를 사용하여 전투력을 4 만까지 올리고 진심의 일격으로 에스카노르를 공격하는데 그 여파로 주변이 초토화되는 연출에 비해 에스카노르에겐 고작 팔에 무기가 살짝 박힌 정도였을 뿐이었다. 덤으로 이 당시 에스카노르의 전투력은 5 만을 넘고 있었다. 전혀 상대가 안 됨을 깨닫고 메라스큐라는 자리를 뜨자고 권하나 갈란은 두 말은 필요없다며 피 튀기게 싸울 것을 권유, 이에 답하듯 그럼 제 차례군요...라며 텃타를 하늘로 들어 올린 순간 공포를 느껴버린 갈란은 등을 보이고 말았고, 스스로 걸터든 금계의 제약인 도망 불가의 맹세를 어긴 탓에 돌이 되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리타이어 하게 된다. 이후 계급의 제약은 당사자가 어겨도 돌이 됨을 아이러니하게 여기는 한 편 상대가 자신인 이상 그럴만도 하다며 메라스큐라에게 도망인지 죽음인지 선택할 기회를 주더니 자신이 페미니스트인 사이에 선택을 중용하나 이내 암담의 고치에 걸려 영혼을 빼앗기고 메라스큐라에게 영혼을 먹혀 버리지만 에스카노르의 마력이자 힘의 원천이 태양이었던 탓에 곧 바로 뜨겁다고 몸부림치다 몸이 발화하며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고 영혼은 다시 에스카노르에게 돌아온다.

그 뒤 반에게 여러가지로 용건이 있지만 정오에 가까워 졌으니 밤에 이야기 하자며 그 때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을 내리곤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 이 후 한밤중이 되어 소심한 말라깽이 상태가 돼서야 돌아와 반에게 제리코, 엘레인을 소개 받은 뒤 일곱개의 대죄 일행에 다시 합류하기 전에 술을 어느 장소까지 전달해야 한다며 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냥 안하면 되지 않냐는 반에게 이건 술집의 마스터로써의 마지막 임무이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굽히지 않는다.

고서 밑에 깔린 채 등장하는데 깔리면서 멀린이 준 안경이 부서져서 좌절하고 있던 차에 글록시니아가 시끄럽다면서 배를 찢어버린다. 아직 멀린에게 고백도 못 했다고 아쉬움만 남기고 죽어가는가 싶더니 글록시니아가 대회의 우승자에겐 무엇이든 들어준다는 걸 입증하는 예시 삼아 다시 살려낸다

십계가 준비한 토너먼트에서 고서&제리코와 맞붙는다. 거기에 에스카노르와 한 팀인 자는 다름아닌 호크(...) 에스카노르는 동료끼리 싸우기는 싫다고 본인과 호크를 부전패 시키거나 물을 변경 해달라고 십계에게 요청하나 당연히 기각. 호크와 고서를 말리려던 제리코 둘 다 고서에게 털리고 고서는 비록 밤인 상태에서 에스카노르의 전투력은 터무니없이 약하지만 마력 5 무력 5 기력 5 총 전투력 15 <오만의 죄>로서의 에스카노르에게 경의를 표하는 뜻에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나이트메어 테라라는 기술을 쓴다. 이 때 에스카노르의 과거가 나오는데...

과거 한 나라의 둘째 왕자로 태어났으나 어린 시절 자신에게 질투심을 느낀 형에게 구타 당하다가 마력이 발동 돼 형의 팔을 부러뜨리게 되고, 이 후 다른 사람들은 물론 자기 부모마저 그의 한 낮의 변모한 모습을 보고 괴물이라느니 저주라니하며 살려두면 나라에 재앙이 닥칠거라며 에스카노르를 죽이려 하였으나 어려서부터 에스카노르가 잘 따랐던 로자라는 여성이 에스카노르를 피신 시켜주어 목숨을 부지하게 된다. 이 후 정처없는 방랑 생활을 하다 로자와 매우 닮은 멀린과 멜리오다스와 만나 멀린의 권유로 일곱 개의 대죄의 일원이 되고 방랑 생활중에도 낮의 모습 덕에 괴물 소리를 들으며 두려움의 대상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자신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흥미로워 하는 멀린에게 사랑의 감정을 품게 된다.

그러나 이 과거 회상 직후 고서가 만들어낸 멀린의 환영이 나타나 에스카노르에게 내일이 없는 자와 함께 걸을 순 없어라는 말과 함께 너의 저주는 풀 수 없다, 너는 그냥 내 실험 재료일 뿐이다, 평생 누구에게도 사랑받는 일 없이 고독하게 죽어라 등의 저주와도 같은 매도와 폭언을 들으며 에스카노르의 의식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듯 하였으나 에스카노르는 이미 멀린에게 실험 대상 취급 받아도 좋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에스카노르는 어둠 뿐이었던 자신의 인생을 비춰준 태양같은 존재가 멀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을 무슨 말로 매도하건 설령 실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고 해도 멀린만을 바라볼 것을 이미 결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멀린이 주는 추상적인 태양의 이미지 덕분에 한밤중인데도 낮 처럼 외향과 전투력이 증가해 버린 것은 덤. 이후 고서의 안경을 빼앗아 호크에게 넘기고, 진심이 된 고서와 대치. 고서의 개틀링 잭을 점프로 가뿐히 피한 뒤 신부 릿타를 소환해 신기를 해방하며 마음을 가지고 논 대죄를 그 몸으로 속죄하라며 공격하려 하자 반이 제리코와 호크가 공격에 말려들 것을 우려해 에스카노르를 막으려는데 멜리오다스가 에스카노르를 믿으라며 반을 말린다. 고서도 쌍궁 해리트를 십자 모양으로 만들어 자동 추적모드를 작동한 상태에서 에스카노르에게 블랙 아웃을 사용, 이에 에스카노르의 공격은 고서를 비켜가 불발이 되고 다시 밤의 말라깽이 모습이 되어 쓰러져 고서의 승리가 되나 했으나 애초에 에스카노르가 노린 것은 고서가 아니라 십계인 드롤과

글록시니아였다. 이 공격으로 드롤과 글록시니아는 그로기 상태가 된 채 피투성이가 되었다.

이 후 공간 이동으로 성으로 돌아와 고서에게 업힌 채로 단장과 십계들과의 전투를 지켜보다 멜리오다스가 십계에 패하는 모습에 눈물을 흘린다. 그 뒤 한동안 출연이 없다가 일행들을 추적해온 에스카롯사의 증오를 품는 자는 힘을 쓸 수 없는 금주로 인해 움작달작 못 하는 동료들 사이를 홀로 금주를 개무시하며 당당한 걸음으로 에스카롯사의 앞에 나서며 재등장. "왜 금주가 통하지 않지?"라는 그에게 태연한 어조로 "당연하죠, 자신보다 약한 자에게 증오를 느낄리가 없지 않습니까." "약자에게 느낄 수 있는 건 연민 뿐..."이라며 에스카롯사와 전투에 돌입. 진성 먼치킨 갈란 때를 떠올렸는지 자신에게 증오를 품어서 스스로의 금주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친절한 조언은 덤(...)

일단 서로 가볍게 한 방씩 주고 받는데 힘싸움에선 한 수 위인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음 공격에서 에스카롯사의 모든 물리 데미지를 반사시키는 마력 풀카운터에 의해 자신의 공격에 데미지를 입고 만다. 허나 "왜 아픈가 했더니 내 공격이라서였군요. 역시 이 몸이야."라는 셀프 칭찬 오만한 대사와 함께 여전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그뒤 서로 이름을 교환하더니 에스카롯사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자신도 진심을 낸다고 하면서 "우선 정상적으로는 못 죽습니다?"라고 말한다.

동료들이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에스카롯사를 날려보내 결투 장소를 변경. 에스카롯사를 호수 밑으로 날려버린 뒤 작은 태양과도 같은 크루얼 썬을 날려 에스카롯사와 함께 호수를 통째로 증발시켜버린다. 허나 에스카롯사는 어둠을 펼쳐 가까스로 가드에 성공한 뒤 어둠을 두른 상태로 전력을 다하게 되고, 에스카노르의 마력인 태양은 어둠으로 감싸 무력화하고 물리 공격은 풀 카운터로 무력화하는 등 우위를 잡은듯한 모습으로 십계인 젤드리스가 '승부는 났군'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전개가 이어졌으나... 아직 정오가 아니었다.

심지어 정오(풀 파워)까지는 무려 1 시간 이상이 남아있었으니, 다시 말 해 십계의 가짜 수장을 밀어붙이던 그 모습조차 힘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던 것. 바로 일어서면서 반격을 시작하는데 다시 한 번 말투가 바뀐다. 더욱 오만하게.

이에 위기감을 느낀 젤드리스가 재빨리 난입하나 에스카노르가 마력을 내리 쏘는 순간 에스카롯사가 증발하는 듯한 묘사와 함께 날려져버리고 난입한 젤드리스도 말려들었는지 함께 날려져버리고 만다. 전투가 끝나 왕도로 돌아가야 하지만 본인이 풀파워에 가까운 상태라 방출하는 엄청난 열기를 신부 텃타로도 다 흡수할 수 없는 상태라 한동안 그 장소에 머물기로 한다.

일몰이라 근육질은 아니지만 말라깽이도 아닌 평범한 모습으로 나온다. 한밤 중은 아닌지라 자기 자신에게 비판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목욕하는 멀린을 안마 해주며 등장. 부럽다 이 때 아침임에도 말라깽이 모습을 하고 있는데 멀린이 무슨 수를 써서 에스카노르의 마력을 봉인해 놓은 모양. 전투 후 침울한 멜리오다스의 기운을 분돈아주기 위해 시를 읊어주나 흑평만 받는다

원혼이 씩씩 동료들을 공격하는 다이엔을 멈추려 레이디니까 얼굴은 피해드리죠. 라며 가볍게 배빵 한 방 먹여주나 반격 당한다. 물론 데미지는 없었고 이 후 할 수 없으니 계속 주먹으로 대화를 나뉘보자며 히이익 몸을 추스리나 멀린의 중재로 멈추고, 이 후 229 화에서 난입한 과거의 기억을 되찾은 엘리자베스가 멀린에게 많이 컸다며 "이젠 언니야 라고는 불러주지 않는 거야?"라고 하자 대홍분하며 "엘리자베스 왕녀,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라며 하악하악 거린다(...) 이 후 메라스큐라의 암담의 고치를 자력으로 탈출한 멜리오다스의 사악하고 강력한 마력에 이끌린 듯 신부 릿타를 들고 멜리오다스의 앞에 서게 되고, 멀린은 지금의 단장은 너의 힘으로도 벅차다며 말리지만 이래봐도 아이 돌보기는 자신 있다며 이젠 정말 달랠 보람이 있어 보이는군요...라는 대사를 끝으로 최강자들의 결투인 멜리오다스(最凶) vs 에스카노르(最強)의 대전이 예고 되었다.

드디어 멜리오다스와 격돌. 여유작약한 분위기로 릿타를 몇 차례 휘둘러 공격하지만 모두가 당하고 멜리오다스의 일방적인 공세가 이어지다 배를 꿰뚫리며 쓰러지는 등 다소 불리한 분위기가 이어지지만 곧 정오다.라는 멀린의 말과 함께 다시 일어서며 한층 더 근육질이 된 모습과 더불어 말투가 반말로 바뀐다. 더불어 전투력도 11 만 4000 까지 상승. 상황이 역전될 듯한 분위기로 이어지는 승부에서 슈퍼 슬래쉬를 날리나 가볍게 회피한 멜리오다스가 날린 펀치 한 방을 가슴에 맞고 또 다시 무릎 꿇게 된다. 머리를 짓밟히며 바뀐건 말투 뿐이냐?는 비웃음을 받은 건 덤.

에스카노르 조차 상대가 안 되는 모습에 동료들은 좌절하고 멀린은 저것이 순수한 마신족 영웅으로서 십계를 통솔하던 시절의 멜리오다스의 모습이라고 설명. 에스카노르는 전투를 이어가지만 단장은 모든 공격을 받아내고 크루얼 썬도 폴 카운터로 튕겨버리는 등 계속 우위를 선점하던 중, 칼이 날려져 버리고 에스카노르는 회심의 펀치를 날리는데 성공하지만 카운터로 얼굴에 맞은 주먹 한 방에 에스카노르는 퍼펙트 큐브 안을 수 차례 튕겨지다 또 다시 쓰러져 버린다. 동료들이 거듭 좌절하는 가운데 멀린은 남은 유예는 1 분...이라고 중얼거리고, 정오가 가까울수록 강해지는 에스카노르의 특성을 다시금 설명하며 정오를 기준으로 약 1 분 동안 에스카노르는 무적의 화신인 더 원(The One)이 된다는 말과 동시에 에스카노르는 더욱 부풀어 오른 근육과 전신이 불타오르는 듯한 더 원의 모습이 되어 다시 일어선다.

그와 동시에 멜리오다스의 신 죽이기(神千斬ぎり) 라는 기술에 베여버리지만

"가렵군"이라며 멀쩡한 모습과 더불어 등에 사자의 낙인이 선명하게 드러난 모습을 보이고 뒤이어 손을 수직으로 세워 허공을 가볍게 베는 동작과 함께 "성검.에스카노르"라 읊조리자 멜리오다스의 몸이 사선으로 썰린다!" 더 원 상태로 일격만으로 십계 시절에 멜리오다스를 치명상을 입혀 쓰러트린 후 "마신인가 하는 놈, 인간에게 멸시받는 기분은 어떤가?"라는 대사와 함께 에피소드는 종료한다.

멜리오다스를 쓰러트린 뒤 멜리오다스가 다시 회복해서 날뛰면 어쩌냐고 걱정하는 일행들에게 에스카노르는 자신이 다시 한번 더 달래주겠다고 웃으며 얘기한다. 하지만 멀린이 허세를 그만 부리라면 가슴을 주먹을 톡 쳤더니 에스카노르 역시 그대로 쓰러져서 기절한다. 멀린이 보기를 멜리오다스와 에스카노르 둘다 치명상을 입었지만, 에스카노르는 멜리오다스가 입힌 대미지에 자신의 마력의 특성상 힘을 많이써서 자신도 대미지를 입어버린 것. 둘의 상태를 보는 도중 멜리오다스가 어둠의 힘으로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지만, 멀린에 의해 저지 그리고 퍼펙트 큐브로 따로 격리할 것을 요구해 멜리오다스와 엘리자베스는 퍼펙트 큐브로 따로 격리 된다. 그리고 둘의 회복에 전념한다. 고서의 평으로는 멜리오다스는 신체의 78%의 대미지를 받았고 에스카노르는 98%의 대미지를 받아 일시적으로 둘의 전력을 잃어버렸다. 남은 다섯은 카멜롯에 도착할 때까지 십계가 공격해올 가능성이 있으니 자신들이 힘내서 막자고 다짐을 한다.

하지만 찬드라의 등장으로 에스카노르와 고서는 힘을 못쓰게 되고 호크가 낙인을 지우고 고서와 킹과 디안느가 협동해서 겨우겨우 무찌른다. 하지만 낙인은 지워지지않아서 고서는

쓰러지고 찬드라는 모습을 바꿔백발의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흑발의 젊어 보이는 모습으로 되돌아가 일행을 추적하고 드룰과 글록시니아의 희생으로 어찌저찌 따돌린다.

그후 멀린과 젤드리스가 협상을 해 카멜롯을 해방시키고 류드시엘의 공격을 틈타 빠져나온다. 밤이 된후 스티그마의 결성을 지켜본다.

낮이 되자 안경이 부서졌는지 안경을 하지않고 호크와 장을 보다 에스카노르의 마력을 느낀 류드시엘과 신경전을 벌인다. 사실 에스카노르의 마력은 최고신이 내려주는 것이라며 사대천사중 한명이고 류드시엘 남동생이었던 마엘이 가지고 있었던 마력이었던 것. 류드시엘은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은 신의 힘이며 네 몸을 점점 갇아 먹을 것이라며 그힘을 좋은 말로할 때 버리라고 하지만 에스카노르는 그런이야기엔 흥미없다며 이 힘은 내가 태어날때부터 있었던것이고 당신이 말한 은총이란 것이라면 그 은총이 가장 강하고 위대한 나를 선택한 것 아니겠냐며 류드시엘의 검을 녹여버린다. 이에 류드시엘은 마음에 든다며 호탕하게 웃고 도움이 되어보라 말하고 에스카노르도 웃으며 그쪽이야 말로 발목 잡지말라 응수한다.

아서를 구하러 먼저 혼자 카멜롯에 가겠다는 멀린의 작전에 반대하며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애송이를 구하러 갈 가치는 없다 말하지만 멀린이 췌려보자 바로 눈을 돌린다. 이때 아직 자신의 마력도 모르는 사람을 어째서 그렇게 구하러 하는 것이냐는 호크의 말에 에스카노르도 동조하고 멀린에게 대답을 듣는다.

큐자크의 공명때문에 자결을 한 아서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슬퍼하는 멀린의 모습을 보고 문밖에서 그녀를 격려하려는 말을 연습한다. 그러나 멀린에게 아서의 존재가 엘리자베스에게 멜리오다스의 존재와 같다는 엘리자베스의 말에 크게 낙심하여 땀뻗 문을 두드리지도 못하고 돌아간다. 이후 에스카노르는 성전을 위한 마지막 작전회의에 참여하러 가는 길에서 고개를 숙인 채 기운 없는 모습을 보인다. 또 회의장에서 타르미엘과 사리엘이 에스카노르를 보고 마엘의 은총이라며 놀라자 난 지금 기분이 몹시 별로라고 짜증을 낸다. 하지만 곧 바로 멀린이 작전회의 중이니 정숙하라고 하자 쭈굴... 이후 에스카노르는 카멜롯에 직접 침투하는 강습부대로 선정된다.

다이앤과 킹의 연애질에, 성전을 앞두고 정신이 빠졌다며 질투 훼방을 놓는다. 이 때 기분 나쁜 일이 있냐며 묻는 멀린의 목소리가 들리자 곧바로 뒤를 돌아 보는데 실은 고서의 목숨을 건 장난. 그걸 보고 빠친 모습을 보이지만 이후 몰래 피를 토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망플래그를 쏜다. 류드시엘의 언급에 의하면 애초에 평범한 여신족이 다루는 힘도 아니고 최고신의 선택을 받은 사대천사의 은총이다보니 일반적인 인간의 몸으로 감당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긴 하지만.

에스타롯사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에스카노르의 마력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의혹이 조금씩 생겨났다.

오랜만에 재등장. 강습부대의 다른 일행들과 함께 카멜롯으로 침투, 찬드라와 대치한다.

찬드라를 공격하면서 멜리오다스의 고치를 공격하지만 통하지 않는 걸 보고 감탄한다. 그후 젤드리스가 자신의마력 '홍성운'을 발동하자 빨려들어가는 것을 힘으로 버티고. 멀린은 무사한지 알아보고 안도한다. 류드시엘은 그렇게 빨아들이고 싶으면 빨려가주겠다며 빨려들어가면서 젤드리스를 공격하지만 오히려 알수없는 힘에 역공당해 상처를 입고 무기가 부서져버리고 에스카노르의 등에 잠시 기댄다. 에스카노르는 친한척이냐며 싫어하지만 류드시엘은 그렇게 아니라며 반박한다. 류드시엘은 멀린으로 부터 젤드리스의 마력에 대해

묻고 에스카노르에게 협력을 명령하지만 에스카노르는 류드시엘을 향해 건방 MAX 라며 김다. 나한테 명령하려 하다니 건방 맥스! 큐자크&찬드라:...건방 맥스. 류드시엘이 다시 달려들어가려 하자 멀린은 보다 못해 에스카노르에게 협력해주라 부탁하고 에스카노르는 받아들여 류드시엘을 구한다. 다른사람 명령은 안듣지만 멀린만은 예외라고. 대신 좋은 작전 아니면 패럴거라고...

류드시엘의 작전대로 상대의 반격 타이밍을 흐려 놓지만 젤드리스는 어렵지않게 반격해버리고 이에 조금 놀란듯한 표정을 짓는다. 젤드리스는 이제 지루하다며 진심을 내기 시작하자 멀린의 텔레포트로도 벗어날수 없을 정도로 흡인력이 강해지고 멀린 달려들어가자 스스로 달려들어 멀린을 감싸고 공격을 대신맞지만 완전히 막아내진 못해 부상을 입은 멀린을 보고 충격을 받고 '크레이지 프로미넌스'를 발동시켜 무차별 공격을 한다. 찬드라와 큐자크를 휘말리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격이었지만 젤드리스는 멀쩡했고 에스카노르도 충격이 가셨는지 멀린에게 1분만 버텨달라 부탁하는데... 이때 존댓말이 아닌 반말을 사용한다.

더 원이 발동된다.

더 원 상태의 에스카노르는 젤드리스가 사용한 흥성운(오미너스 네블라)를 무시하며 제 발로 걸어가 신부 릿타를 내려찍는데 오히려 신부 릿타가 미세하게 흠집이 나버린다. 그러자 에스카노르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련없이 신부 릿타를 집어던진 후 성검 에스카노르를 시전해 오미너스 네블라와 풀 리액트를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힘으로 찍어눌러 말끔히 파훼되어버린다. 이에 젤드리스는 수세에 몰려 뒤로 도망치려 하지만 에스카노르는 도망칠 수 없다고 단언하며 젤드리스의 가슴팍에 성창 에스카노르를 꽂아 치명상을 입힌다. 그리고는 아예 꿰뚫어 마무리를 지으려는 순간 에스카노르의 마력이 마엘의 은총임을 간파한 찬드라가 밤을 몰고와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버려 마무리에 실패했지만 젤드리스가 무너진 그 일순간을 놓치지 않은 류드시엘이 마무리를 짓는다.

이후 에스타룻사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전투가 잠시 멈춰지고 찬드라에 의해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에스카노르는 그틈을 타서 전에 던져버린 신부 릿타를 잡고 축적해둔 태양으로 인해 밤에서도 낮의 모습으로 변한다.

원초의 마신과 합을 나누긴 하지만 밀린다. 정오가 지나면 이정도 밖에 안되냐는 원초의 마신의 말에 헨디캡으로 적당하다며 크루얼 선을 사용해보지만 방패에 막히고 그래도 이길수 있다고 하는 등 오만한 모습은 그대로지만 멀린이 공격받는 것에 달려들다가 원초의 마신 뒷발에 맞고 날아가는 등 확실히 압도당한다.

킹의 합류로 한숨을 돌리나 싶더니 성장한 킹의 힘을 보고 놀라는 멀린옆에서 질투심이었는지 건방지다고 김다(...) 그리고는 젤드리스와 킹이 대치하는 사이 다시 원초의 마신과 공방을 벌이지만 계급이 전부 집결해버리고 그때문에 멜리오다스가 마신왕이되는 걸 막으려는 멀린을 지키다 그만 원초의 마신에게 일격을 맞아 저 멀리 날라가버린다 신부 릿타에 축적된 마력이 고갈된건지 최약상태가 되어 버린 에스카노르는 날라가는 도중에도 울먹이며 아무도 지키지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는데 그렇게 날라가고 있는 에스카노르를 잡아주는 마엘과 재회한다.

마엘과 대화를 나누다가 킹의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지만 네가 빠지면서 카멜롯의 전황은 무척 힘들어졌다."는 발언에 멀린을 떠올리더니 마엘에게 힘을 빌려달라고 한다. 필요하다면 자신의 '태양'마저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그러나 마엘이 거절하자, 자신에게는 '태양'을 건딜만한 수명이 남아있지 않다며, 그러나 '태양'이 없으면 젤드리스와 원초의

마신을 이길수가 없다고 하며, 도저히 받지 못하겠다면 빌려주겠다면서, 그러니 부디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한다.

은총을 돌려받은 마엘의 전투를 보고는 원주인의 활용능력에 감탄하고 마침내 성전이 끝난듯한 분위기에 기뻐하지만 일행과 함께 불길함을 직감하곤 마신왕이 되어 버린 멜리오다스를 대면한다.

멜리오다스의 몸을 마신왕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동료들과 함께 마신왕을 저지하려 하지만 현재상태로는 전투능력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멀린의 퍼펙트 큐브로 대피하고 연옥에서 돌아온 반과 마신왕의 공방을 지켜본다.

마신왕과의 격전이 끝나고 한동안 평화를 되찾았으나 곧바로 다시 젤드리스의 육체를 숙주로 삼아 마신왕이 다시 현세에 모습을 드러내자 킹의 부탁으로 호크와 함께 리오네스 성에 사태를 알리러 간다. 도중 호크가 호크 엄마에게로 이동하자 에스카노르는 피를 토하며 어디론가 사라진 마엘을 찾는다.

이후 길선더가 인듀라의 유체에게 공격받으려 하는 것을 방패로 보호하고 자신은 남은 시간이 별로 없지만 젊은이들에겐 반짝반짝한 미래가 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노병의 할 일이라며 인듀라 유체한테 덤비지만 힘의 격차를 넘어서지 못해 양팔이 날아가고 피투성이 되는 등 죽기 직전까지 물리고 말지만 아래와 같이 독백하며 다시 계속 일어선다.

그렇게 죽나 싶은 순간, 마엘이 나타나서 인듀라 유체를 불태우며 구해진다. 거기에 에스카노르는 마엘에게 전샤인의 마력을 빌려받기를 요구하나 마엘은 에스카노르의 몸을 걱정하며 망설인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일곱개의 대죄하고 같은 전장에 서고 싶다, 그들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다면 자신은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싶다는 에스카노르의 말에 웃으면서 아직 정오까지는 시간이 남았다는 말과 함께 에스카노르에게 손을 내밀고, 에스카노르가 그 손을 붙잡은 순간...

인생의 마지막으로 은총을 빌려 받는다.

마지막에 어설트 모드의 멜리오다스, 신기를 되찾은 반, 날개가 완전히 성장한 킹이 힘을 합쳐 진지하게 상대해야만 막을 수 있는 마신왕의 검격을 정오도 아닌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신을 간단히 돌파해 수도로 간단히 막아내며 등장. 이로써 일곱 개의 대죄 전원과 엘리자베스가 모두 모이게 된다.

동료와 자신의 각오를 위해 마신왕의 앞에 서는 것과 동시에 모든 공격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는 폭풍 간지를 보여주며 제가 실수로 마신왕을 쓰러뜨리기 전에라는 오만함을 보이지만 대미지를 이기지 못해 비틀거리고 말았고, 오만한 발언에 분노하여 제대로 도발이 걸린 마신왕에게 공격받을 뻔하나, 반이 개입하여 마신왕을 걷어 차버린 덕분에 무사하다. 여기에 킹이 마신왕의 움직임을 제지시켜 틈을 만들어준 덕분에 멜리오다스와 고서가 젤드리스의 정신세계에 침입하게 도움을 준다. 그리고 단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반, 킹과 함께 싸움을 이어가는데 에스카노르는 마신왕에게 어퍼컷 한 방 제대로 먹인다.

마신왕과 싸우던 중 예상치 못한 인물이 끼어들자 깜짝 놀라 굳어버린 그 인물이 다름아닌 젤드리스의 연인인 흡혈 공주 게르다로서 마신왕에게 목을 잘리고도 재생해 정신세계로 침입했다는 것을 듣게 된다.

반, 킹과 함께 마신왕과의 전투를 이어가지만 마신왕 쪽은 거의 노 대미지 상태인데다 호수에서 거의 무한히 마력을 흡수해 회복하는 탓에 결국 마신왕의 마법 공격에 3명 다 부상을 입는다. 이에 엘리자베스가 퍼펙트 큐브를 해제하고 셋에게 치유 마법을 사용해주는데 거기에 잠시 한눈을 판 반을 마신왕이 공격하려하자 몸통박치기로 마신왕을 저지시켜 날려버리는 등 마신왕과 엇비슷한 그 체격을 이용하여 일종의 탱커 포지션을 맡는다. 하지만 마신왕만 신경쓴 사이 보호막을 해제해 무방비 상태가 된 엘리자베스가 번개에 공격당하기 직전 번개가 반사되고 곧 뒤에서 거대한 참격이 날라오자 반과 함께 몸을 피하는데, 다름 아닌 젤드리스의 정신세계에서 나온 멜리오다스의 일격으로 이제 더이상 거릴길 것도 없다는 듯 "그럼...슬슬 진심으로 가볼까"라며 말투가 반말로 바뀐다!!!

본래 거인족 사이즈로 돌아온 다이앤이 대지창조를 이용해 호수 주변의 지형을 재창조해서 호수를 없애버린다. 이로써 마신왕의 무한한 마력을 주었던 호수를 차단함으로써 기세를 탄 일곱 개의 대죄 전원 마신왕 토벌을 준비. 그리고 에스카노르는 불타오르는 손가락을 하늘로 치켜들며 마신왕에게 한가지 비보이자 낭보를 알려준다. 드디어 때가 왔다고 읊조리며 다른 단원들에게 방해하지 말라며 물리고선 홀로 마신왕과 마주하며 싸움에 들어간다. 두사람의 싸움은 그야말로 박빙으로 서로에게 펀치를 주고받다가 마신왕의 일격에 날아가버리지만, 그저 아플뿐이라고 일침하며 마신왕을 주먹으로 내리치는데, 그 일격에 마신왕이 한쪽 무릎을 꿇는다!! 네놈의 일격에서는 아무 것도 느낄 수 없다.

영문모를 소리나 지껄이지 말라며 공격해오는 마신왕이지만 에스카노르는 그대로 박치기로 되돌려주고 서로 주먹을 주고받는다. 하지만 고작 1분 동안 마신왕을 이길 수는 없었고 결국 시간초과로 인해 더 원이 해제되자 마신왕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한 주먹에 배가 꿰뚫린다 그러나 에스카노르는 배가 꿰뚫리고도 더 원이 초라해보일 정도로 더더욱 불타오르기 시작한다.

발동된 '더 원 얼티밋'은 이름에 걸맞게 더 원을 초월한 파워를 선보인다. 하지만 그 정체는 에스카노르의 모든 생명력을 마력으로 치환한 것으로, 회광반조를 의미 그대로 구현화시킨 것이었다. 에스카노르의 복부에 주먹이 꽂힌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는 마신왕이 벗어나기 위해 반대쪽 주먹으로 무차별 공격에 별다른 타격은커녕 미동하나 없이, 에스카노르는 마신왕을 일방적으로 폭행한다. 이에 마신왕이 빈틈에다 어퍼컷 한 방으로 반격해 보지만, 에스카노르는 가소롭다는 듯이 단 한 방으로 마신왕을 저 멀리 날려버버린다. 그러자 마신왕은 장난은 여기까지다라고 소리치며 검은 마력의 구체로 공격해오자 이에 멜리오다스의 '카운터 배니쉬'에 의해 저지당하고, 이어서 반의 배니싱 킬, 킹의 파이트 파이어 위드 파이어가 마신왕에게 직격한다.

자신의 싸움에 기여든 단원들에게 소리치며 성큼성큼 전진하던 중, 앞을 가로막은 멜리오다스를 보고 멈춘다.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멜리오다스에게 비켜라고 명령하지만, 멜리오다스는 비키길 원한다면 힘으로 해보라며 받아치고, 자신은 너에게 이런 짓을 시키기 위해 일곱 개의 대죄에 부른게 아니라 일갈한다. 에스카노르는 아직 자신의 힘을 다루는 법을 몰라 폭주하던 때 몇번이고 몇번이고 멜리오다스에게 완벽하게 깨졌던걸 기억하냐고 묻고, "오만하게도 네놈은 그 작은 몸으로 '선샤인'의 사용법을 가르쳤고, 건방지게도 네놈은 고독했던 내게 마음 편한 장소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그게 얼마나 기뻐는지 아냐고 반문한다.



그런 두사람의 대화 중에 마신왕이 흥측하게 생긴 거대한 괴물을 소환하자, 가장 먼저 돌격한다. 나는 지금껏 내 자신에게 맹세해왔다. 한때는 놓으려 했었던 목숨! 너를 위해! 동료들을 위해 걸겠노라고!

혼자 간직하고 있던 각오를 외치며 혼자 나아가지만 멜리오다스를 시작으로 뒤따라오는 동료들과 함께 마신왕이 소환한 괴물을 순식간에 증발시킨다. 불쌍한 괴물 그리고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자신을 용서하라며, 일곱 개의 대죄 전원에게 명령을 내린다

멀린, 반, 고서, 킹, 다이앤 단장... 용서해라... 나는 이제 물러설 수 없다... 그러니 지금부터 너희들 모두에게 명령을 내리겠다. 나도 함께 싸우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신세계에서 젤드리스가, 현실에선 일곱 개의 대죄가 각각의 혈전을 벌이면서 드디어 마신왕을 패퇴시키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마신왕의 부활을 위해 젤드리스 안에 모였던 10 개의 계급들이 젤드리스의 육체로부터 떨어져나가기 시작한다.

계급에 갇든 마신왕의 의지가 다시한번 젤드리스를 노리지만 반이 저지한다. 그러자 마신왕이 계급과 함께 하늘 위로 날아올라 폭발하듯 흩어진 계급들이 닥치는 대로 브리타니아의 대지와 그 위의 동식물들, 심지어 바위산까지 흡수하기 시작한다. 상상치 않은 사태에 곧장 멀린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다름아닌 마신왕은 브리타니아의 대지 그 자체를 새로운 그릇으로 삼는다는 것으로 지형까지 삼켜 비대해진 마신왕의 새로운 모습은 브리타니아 전역에서 그 모습이 보일 정도였다.

기사단 전원 돌격해오자 마신왕의 마법 공격 '데스 제로'의 과중력에 저지당한다. 하지만 과중력안에서도 손을 뻗어 크루얼 썸을 발사해 공격하지만 움직이는 대지나 마찬가지로 마신왕에게는 대미지란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이를 격파하기 위해 캐스팅을 끝낸 멀린의 마력 한계 돌파로 넘쳐나는 마력으로 데스 제로를 찢어내자 파이널 프로미넌스를 사용해 다른 일행들의 마법공격과 하나로 합한다. 마신왕은 데스 제로로 이를 격추하려고 하지만 일곱 개의 대죄 기사단의 합체기가 이를 간단히 분쇄하자 마신왕은 멜리오다스에게 가족의 정을 호소하자 합체기를 풀카운터로 튕겨내는데, 이걸 노린 마신왕이 멜리오다스를 공격하지만 잔상. 구제할 길 없는 쓰레기라 다행이라면서 풀카운터로 합체기의 위력을 증폭시킨 후 그대로 <일곱 개의 대죄> 합기 불구대천으로 마신왕을 끝장낸다.

불구대천의 폭발을 방어한데다 마력 한계 돌파를 사용한 부작용으로 다른 인원들과 마찬가지로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등장. 몇몇은 상처를 입어 엘리자베스의 치유마법으로 정신차린다. 허나 마신왕의 사라진 자리엔 계급이 남아있었다. 신을 쓰러트리는 것과 소멸시키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지만, 멜리오다스는 자신의 진정한 마력인 마신왕 모드의 힘을 개방해 이를 대가로 삼아 마신왕의 계급을 모두 없애버리며 싸움이 끝난다.

마신왕과의 전투가 끝나고 젤드리스와 게르다를 배웅해준 일곱 개의 대죄 단원들에게 모두들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가라고 한다. 그러자 "너도 함께"라며 "계속 거기 서있지말고 같이 돌아가자"는 단원들의 말을 듣지만 에스카노르의 육체는 최후의 생명력까지 짜내 불태운 선샤인의 대가로 육체가 이미 숯덩이처럼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한계가 온 에스카노르는 차례차례로 동료들과 작별인사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멀린에 대한 마음을 고백한다. 이에 멀린은 자신은 그저 에스카노르를 실험체로서 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웃지만 에스카노르는 그런 식으로라도 멀린의 마음 한구석에 살아갈 수 있으면 족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에스카노르의 진실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3 천년만 빨리 자신을

찾아주길 바랬다며 매우 마음 아파하는 멀린에게 당신이 무슨 죄를 짴든, 무슨 선택을 하든 자신은 언제나 멀린 편이라며 멀린을 위로한다.

크게 당황한 멀린의 질문에 처음 만난 때부터 당신은 항상 슬픈 눈이었다는 미소와 함께 답한 뒤 몸이 타들어가다 못해 재가 되어 흩날리기 시작한다. 시간이 다 되었다며 부디 건강히 지내라 작별을 고하며 모두에게 위험하니 떨어져 있으라고 하는데 그 순간 멀린이 열기를 무릅쓰고 에스카노르에게 다가와 불타는 에스카노르에게 키스를 하더니 입가에 화상을 입으면서 네 마음에는 응해줄 수 없었지만 너가 이 세상에 살았던 증거이자 자신을 사랑해준 단 한 남자의 표식을 이 몸에 새기겠다고 말하며 에스카노르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겠다고 선언한다. 여담으로 팬북 <브리타니아의 영웅담>에선 멀린의 이 대사를 축복이라고 언급했는데 에스카노르의 소망이 멀린의 사랑이란 것을 생각하면 매우 의미심장하다

멀린에게 축복을 듣자 에스카노르는 눈물을 흘리며 유언이자 최후의 시를 멀린에게 읊어주고 행복한 미소로 영면을 맞이한다. 몸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잿가루가 되자 잿가루는 칠대죄 동료들과 마엘, 사랑했던 멀린의 주위를 감싸고 지나갔던 에스카노르의 영혼과 함께 하늘로 떠나갔다. 그리고 반파된 릿타 주변에는 멤버들이 꽃 한송이씩 놔준뒤 떠난다.

첫장면, 강렬한 태양빛이 마치 추모하듯 대지를 비추며 한 주민의 태양이다...라는 말로 에스카노르의 죽음을 표현한다.

"미인의 얼굴이 안타깝게 되었다"는 주위의 수근거림과 안타까움에도 멀린은 에스카노르와의 키스로 남은 화상을 지우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자 고서는 그 상처가 있는 한 에스카노르는 멀린 안에 계속 살아갈 것.이라며 그의 죽음을 기렸다. 멀린의 사랑을 원했던 에스카노르의 꿈이 어떻게 본다면 조금은 이루어진 셈.

이렇게 오만하면서도 벼들을, 그리고 사랑을 위해 자신까지 버려가면서 싸워간 한 남자의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

명대사

나의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고 누가 정했지? 나의 태양을 집어삼켰다고 누가 정했지? 정하는 건 나다. 죽어라.

그나저나 당신들은 어리석은 데다가 운도 없군요.

"인간입니다. 다만, 모든 종족의 정점에 선 자이기도 하죠. 이 몸이 바로 일곱개의 대죄, 오만의 죄라이온 신, 에스카노르 님입니다."

"왜 아픈가 했더니 내 공격이라서였군요. 역시 이 몸이야."

인간이 널 내려다보니 기분이 어떤가?

나한테 명령하려 하다니 건방 맥스!

어지간히 내게 박살나고 싶은 모양이로군. 때가 되었다.

모든 것은 친구를 위해.

아무런 힘도 없는 나 따위를 동료로 인정해줬으니까... 낮의 나도 밤의 나도 똑같이...다들 정말로 강하고 정말 다정해... 그런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워왔어. 그것이 나의 긍지야.

나는<일곱개의 대죄>...교만의 죄라이온 썬 에스카노르다.

친애하는 벗을 위해 사력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부터 우리 일곱 명이 이를 업적에 비하면 사소한 일입니다!"

그럼...슬슬 진심으로 가볼까

그리고, 방금 전 네놈에게 슬픈 소식이 하나 추가되었다. 정오다.

네놈의 일격에서는 아무 것도 느낄 수 없다.

나는 지금껏 내 자신에게 맹세해왔다. 한때는 놓으려 했었던 목숨! 너를 위해! 동료를 위해 걸겠노라고!

고서 군. 당신은 저의 좋은 말동무 였어요.

킹 군, 다이엔 씨.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게 아쉽지만 부디 행복하세요.

엘리자베스 님, 페하와 헨디 군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세요.

마엘 씨... 마지막까지 신세가 많았습니다.

반 씨. 술은 적당히 드세요.

단장. 당신은 제 평생의 은인이자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멀린 씨. 계속 당신을 좋아했습니다. 결코 로자를 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은 이런 저를 다른 누구와도 차별하지 않고 대해주었어요.

"여...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뭐, 상대가 저였으니 어쩔수 없겠지만요

안마 실력이 그럭저럭이군요

제 시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군요....

여유를 부리는 것이 강자의 특권입니다.

전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요.

실컷 발버둥 쳐보시길

네놈은 강하다. 나 다음으로 말이지

태양은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깃들어있던 힘. 은총이 스스로 나를 선택한 것이죠

나와 같은 편인 이상 승리는 약속된거나 마찬가지니까

호오. 제 일격을 맞고도 상처하나 없다니, 건방지시군요

허풍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제게 명령하려하다니 거만함 MAX군요.

저는 제 자신의 마음이 가는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때는 무르익었다. 더 원.

전부 자기 탓으로 돌리다니 오만한 생각입니다.

일곱 개의 상처를 마음에 새긴 영웅들이여.' '그대들에겐 두려움도 절망도 존재하지 않으며' '믿는 것은 용기와 긍지, 그리고 우정.' '운명에 농락당해 한 번은 포기했던 삶,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운명에 감사한다.'

'친애하는 벗을 위해 사력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